#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1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 기념 전국학술회의

연암 현평효를 그리다

- 그의 삶과 학문

2020. 8. 5.(수) 오후 1시 30분 ~ 6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옛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주최·주관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Corporation Aggregate The Jeju Dialect Institute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2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3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 기념 전국학술회의

연암 현평효를 그리다

- 그의 삶과 학문

13:30~14:00	**등록**	
		사회: 김보향(제주대학교 강사)
14:00~14:20	**개회사**	강영봉(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축사	송석언(제주대학교 총장)
제1부 연암의 삶		좌장: 강태일(전 서귀고등학교장)
14:20~15:00	**연암의 삶**	강영봉(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연암과의 추억	김병택(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아버지에 대한 회고	현천욱(변호사, 연암의 가족)
	휴식(15:00~15:20)	
제2부 연암의 학문		좌장: 강영종(전 제주제일중학교장)
15:20~17:00	**음운 분야 연구**	정승철(서울대학교 교수)
	문법 분야 연구	강정희(한남대학교 명예교수)
	어휘 분야 연구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휴식(17:00~17:20)	
종합 토론		좌장: 고창근(제주어연구소 이사)
17:20~18:00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성룡(귀일중학교장)
		문덕찬(전 노형중학교장)
18:30~	만찬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4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 기념 전국학술회의

연암 현평효를 그리다

- 그의 삶과 학문

인사말씀

연암 현평효 선생님을 추억하고 그리는 자리가 되기를 ——— **8**

강영봉(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축사

제주어 전승 보존을 위한 의미 있는 역할 기대 ——— **10**

송석언(제주대학교 총장)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5

1부 연암의 삶

연암 현평효 선생의 삶 — 14
강영봉(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연암 선생에 대한 기억들 — 34
김병택(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아버님에 대한 회고 — 39
현천욱(변호사, 연암의 가족)

2부 연암의 학문

현평효의 제주방언 음운론 — 44
정승철(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제주방언 연구의 큰 산, 연암 현평효 교수를 기억하다 — 64
강정희(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연암 선생의 제주도 방언 어휘 연구 — 80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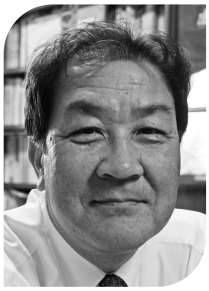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6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7

연암 현평효 선생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8

연암 현평효 선생님을 추억하고 그리는 자리가 되기를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올해는 스승이신 연암 현평효 선생님 탄생 100돌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탄생 100돌을 맞아 선생님을 기리는 학술회의 '연암 현평효를 그리다-그의 삶과 학문'과 더불어 회고집《되돌아본 세월》을 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연암 선생님과의 인연은 1969년 대학 입학한 이듬해부터 시작됩니다. 언어학개론 등 국어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며 흥미를 느꼈고, 망설임 끝에 국어학에 관심 갖기로 하여 이희승의《국어대사전》, 최현배의《한글갈》등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을 통하여 국어국문학회의《국어국문학》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작은따옴표를 삐침으로 대필했을 때, "이런 문장부호는 없는데…" 하시면서 국어학에서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추도사를 썼던 일이나 선생님의 1주기가 지나고 난 뒤 유족으로부터 350여 권의 전공 서적과 와이셔츠 상자 5개를 받았던 감동 이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자 속에는 가나다순으로 배열된 제주어 조사 카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9

다. 공문과 줄판으로 등사된 서류의 뒷면, 백지 등을 이용한 제주어 조사 카드는 선생님의 노고와 생활 자세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공 서적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시절 '연암문고'로 꾸며 기증했고, 제주어 조사 카드는 오동나무 상자 3개에 넣어서 제주어연구소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오늘의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 방역 등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학술대회를 여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매 방역에 힘쓰면서 기념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념사업 제의에 동의하고, 추진위원으로 기꺼이 함께해 준 유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님 비롯한 여러 선생님, 그리고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준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과 함께 감사의 뜻 전합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김병택 교수님, 현천욱 변호사님, 정승철 교수님, 강정희 교수님, 김순자 센터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회고록 발간을 위해 신문 자료 스캔, 교정, 행사 준비 등에 열성을 다해준 김미진, 김보향, 현혜림 선생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책 출판에 애써준 박경훈·강경흠 선생 등 각 출판사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사업이 제주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분도 있었음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회고록《되돌아본 세월》을 통하여 선생의 변함없는 삶의 자세와 제주도 방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지녀야 할 태도, 교육 행정가로서의 견실한 삶을 조금이나마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8. 5.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10

제주어 전승 보존을 위한 의미 있는 역할 기대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 기념 전국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을 기념하는 전국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 귀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자이자 교육자 그리고 교육 행정가로서 활동했던 연암 현평효 선생은 제주대학교와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도립 제주초급대학이던 1954년에 전임강사로 인연을 맺은 이후 34년간 봉직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학문적 완성도를 높이는 연구 활동은 물론 대학의 장으로서 지역과 대학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선생은 평생을 제주어 연구에 몰두하면서 제주어가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제주어의 음운, 문법, 어휘, 방언 연구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귀감이 되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어미 연구〉, 제주방언을 집대성한《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과 자료편) 등은 훗날《제주어 조사 어미 사전》과《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편찬은 물론 우리나라의 방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 제5대 학장을 역임했던 선생은 용담캠퍼스에 있던 대학을 현재의 아라캠퍼스로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제주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1982년에는 초대 총장을 맡아 대학 발전을 위해 진력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약학대학을 유치한 제주대학교는 현재 15개 단과대학, 대학원, 3개 전문대학원, 6개 특수대학원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국립 종합대학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상을 정립하기까지 현평효 전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총·학장님과 대학 구성원 그리고 제주대학교를 사랑해 준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학술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최근 수 십년간 세계화의 물결로 국경을 초월한 인구 이동과 정보 교류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가 널리 통용되면서 지역에서 사용하던 고유 언어 중 하나인 방언은 어느덧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주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어는 한국어의 원형과 한글의 제작 원리를 보여 주는 언어로 그 특수성과 언어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소멸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주어의 생존과 보존 그리고 활성화가 필요한 이 시기에 연암 현평효 선생의 업적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후학들이 제주어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어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과 행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을 기념하는 전국 학술대회를 준비해 준 강영봉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김병택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 현천욱 변호사님, 서울대학교 정승철 교수님, 한남대학교 강정희 명예교수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12

님,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그리고 전·현직 제주어교육연구회장님과 제주어연구소 이사님 등 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 19시대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리며,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과 다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5일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13

1부

연암의 삶

연암 현평효 선생의 삶
강영봉(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연암 선생에 대한 기억들
김병택(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아버님에 대한 회고
현천욱(변호사, 연암의 가족)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14

연암 현평효 선생의 삶

강영봉(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1. 연암 선생 관련 자료들

(1)《연암 현평효 박사 회갑기념논총》(1980, 연암현평효박사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이 자료는 연암 선생이 제주대학장일 때 회갑을 맞이하여 '연암현평효박사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에서 발간한 논문집이다. 서예가 박태준의 "壽似南山 福如東海"를 시작으로, '연보', '가족 상황', '주요 논저', '연암의 화갑논문집을 기리는 글'(정병욱)과 42편의 논문[1], 그리고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보', '가족 상황', '주요 논저' 등을 통하여 연암 선생의 삶을 반추할 수 있다.

(2)《연암 현평효 총장 식사 선집》(1985, 제주대학교)

이 자료는 연암 선생의 정년퇴임을 맞아 제주대학 5대 학장과 제주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는 5년 반 동안의 각종 행사에서 한 인사말을 수록하고 있다. 연암 선생의 근영을 시작으로, '발간사'(연암 현평효 총장 식사선집 편찬위원회), '학장 재임 시 화보', '1980년 1월 5대 학장 취임사부터 1981년 11월 제주대학 공무원 복무 선서식

훈시'까지 학장으로서의 식사가 수록되어 있다. 또 '총장 재임 시 화보', 1982년 3월 13일 '초대 총장 취임사'를 시작으로, 1985년 6월 28일 '제13회 국립대학교 체육대회 대회사' 등 71편의 식사가 수록되어 있다. 1980년 1월 14일부 1985년 8월 30일 정년퇴임식까지의 일지가 연도별 날짜별로 수록되어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특히 학장과 총장의 취임사는 연암 선생의 교육철학을 겉볼안 할 수 있다.

⑶ 〈되돌아본 세월〉(육필 회고록) (〈한라일보〉 1993. 3. 6.~8. 14.)

이 자료는 일간지 〈한라일보〉에 '되돌아본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1993년 3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연재되었던 육필 회고록 성격의 글이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싣는 연재물이지만 신문사 사정에 따라 날짜를 건너뛰기도 한다. 8월 14일 45회 말미에 "(필자 개인 사정 더 이상 집필이 어려워 오늘로 이 연재를 일단 끝냅니다.)"라는 구절은 제주대학교 초대 총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습관장을 지내는 동안의 여러 가지 일화들이 묻힘을 알리는 것 같아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

1) '고본청구영언'의 편자에 대한 관견(강전섭), William Blake와 Innocence의 시(강통원), 국어의 위치 제약에 대하여(김경훈), 아이누어의 수사에 대하여(김공칠), 화산선계록과 유이양문록(김기동), 내마설총의 이두문에 대하여(김민수), 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장 학습 지도의 단계(김성배), 산성일기에 대하여(김수업), On Foue Types Complementation(김순택), 지용의 새로움(김시태), 한국전승동요수집연구경위(김영돈), 어휘통계학으로 본 평안방언과 함경방언(김영배), 민족사의 비극과 그 상심(김영화), 도이장가의 새로운 해독을 위하여(김완진), 비극적 전망(김용성), 국문학사 고찰상의 여러 문제(김준영), 제주방언 모음체계의 음향분석(김한곤), '용부전'의 의인화대상 고찰(김현룡), '비바리'어고(김홍식), GLIDE y IN KOREAN HISTORICAL PHONOLOGY(도수희), 한일근대문학의 접촉고(문덕수), 고판 활자본 '배자예부운략'에 대하여(박병채), 이상화 시작품의 정체(박철희), '사성통해' 속의 우리말 어휘(Ⅱ)(박태권), 추사의 도망시와 제문고(양순필), 심산연구(2)(여증동), '구개음화'에 대하여(梅田博之), 가파도 방언의 특징(이기문), 한국한자음의 특징고(이돈주), 언문과 훈민정음 관계(이동림), 선묘와 광청아기 설화(이두현), 〈말의 소리〉에서 〈조선 말본〉으로(이병근), 읽기(이상태), 관용어와 언어구조(임경순), 신라가요와 그 산문기록의 주력개념 추적에 대한 방법론고(임기중), 향가의 '왕생' 사상과 '님'의 속성(정익섭), '바위'의 차용표기에 대하여(최범훈),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및 매개모음(최태영), 힘내기형 전설의 구조와 그 의미(현길언), 약마희고(현용준), 이두연구(Ⅰ)(홍순탁), 근대국어의 격연구(2)(홍윤표) 등 42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회차	날짜	내용	회차	날짜	내용
1	3. 6.	나의 부모	24	5. 29.	제주도방언 연구(9)
2	3. 10.	글방과 개량서당	25	6. 2.	제주도방언 연구(10)
3	3. 13.	일본에서 변호사를 꿈꾸며	26	6. 5.	제주도방언 연구(11)
4	3. 17.	첫 교단생활에서	27	6. 9.	제주도방언 연구(12)
5	3. 20.	국학에의 길(상)	28	6. 12.	제주도방언 연구(13)
6	3. 24.	국학에의 길(하)	29	6. 16.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1)
7	3. 27.	제주대학원에서	30	6. 19.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2)
8	3. 31.	도립초급대학에서(1)	31	6. 23.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3)
9	4. 3.	도립초급대학에서(2)	32	6. 26.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4)
10	4. 10.	도립초급대학에서(2)	33	6. 30.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5)
11	4. 14.	4년제 대학이 되고서(1)	34	7. 3.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6)
12	4. 17.	4년제 대학이 되고서(2)	35	7. 7.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7)
13	4. 20.	4년제 대학이 되고서(3)	36	7. 10.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8)
14	4. 21	4년제 대학이 되고서(4)	37	7. 14.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9)
15	4. 24	4년제 대학이 되고서(5)	38	7. 17.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10)
16	4. 28.	제주도방언 연구(1)	39	7. 21.	제주대학장직을 맡고 종합대학 승격 추진(11)
17	5. 1.	제주도방언 연구(2)	40	7. 24.	제주대학장직을 맡고교지관리 및 시설확충(1)
18	5. 8.	제주도방언 연구(3)	41	7. 28.	제주대학장직을 맡고교지관리 및 시설확충(2)
19	5. 12.	제주도방언 연구(4)	42	7. 31.	제주대학장직을 맡고교지관리 및 시설확충(3)
20	5. 15.	제주도방언 연구(5)	43	8. 4.	제주대학장직을 맡고교지관리 및 시설확충(4)
21	5. 19.	제주도방언 연구(6)	44	8. 11.	제주대학장직을 맡고교지관리 및 시설확충(5)
22	5. 22.	제주도방언 연구(7)	45	8. 14	제주대학장직을 맡고교지관리 및 시설확충(6)
23	5. 29.	제주도방언 연구(8)			

(4)《교육제주》130 (20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특별기획 근·현대 교육인 열전 34: 현평효 선생)

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간하는 계간지로, '근·현대 교육인 열전 34-현평효 선생'을 특집기획으로 다루고 있다. 회고담으로 조명철(전 중등교장)의 〈연암 현평효 선생님을 기리며〉, 강영봉(제주대학교 교수)의 〈연암 현평효 선생님의 삶과 학문〉, 장남인 현천욱 변호사의 〈아버님이 남기신 무언의 교훈들〉, 그리고 김길웅(전 중등교장)과 현명택(차남, 제주대학교 교수)의 글과 사진 설명으로 '지상 사진전'이 마련되어 있다.

(5)〈연암 현평효의 삶과 학문〉 (2019, 강영봉,《방언학》29, 201~225, 한국방언학회.)

이 글은 한국방언학회의 기관지《방언학》29호(2019. 6.)에 발표한 자료이다. 탄생 100돌을 앞둔 연암 현평효 선생의 삶과 학문을 살펴본 것으로, 연암 선생의 주요 경력과 연구 업적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방언학자와 교육행정가로서의 삶과 제주방언에 대한 44편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국어학의 '음운', '문법', '어휘' 세 분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일별하고 있다.

그 외로 제주대학교 발행의《제주대학교 30년사》,《제주대학교 50년사》,〈제대신문〉과 제주도내 일간지인 1960, 1970년대 〈제주신문〉 등의 기사도 좋은 자료가 된다.

2. 연암 선생의 삶

2.1. 삶의 궤적

연암 현평효 선생은 1920년 음력 8월 16일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리 구몰동에서 연주현씨 봉준(延州玄氏 鳳俊)을 아버지로, 제주 양씨 보아(濟州梁氏 寶娥)를 어머니로 하여 3남 2녀 가운데 2남으로 태어났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18

아버지는 “천성이 순박하며 강직한 편이셨고, 어려서부터 유학을 배우셨다. 그래서 성현의 가르침을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서 선한 행위만을 행하려고 힘쓰셨다. 자녀들에게도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라고 늘 교훈해 주셨다. 아버님은 젊으셨을 적에 한문서당을 열어 동네 청년들에게 훈학도 하셨다. 나도 천자문은 아버님한테서 어렸을 적에 배웠다. 아버님은 또 숭조애족하는 마음이 남달라 도타우셔서 문중의 일을 도맡아 보시다시피 하셨다. 시조 연산부원군 경헌공의 19대손이시며 아버님에게는 7대 선조이신 원상공께서 효성이 지극하셔서 그 효행적 사항들이《속수삼강록》등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 효행적을 기리는 효자비와 효자문을 아버님 생전에 세우지 못하심을 못내 안타까워하셨다.”(〈되돌아본 세월〉〈1〉회 차, 3월 6일)는 회고로 볼 때, 연암 선생이 평상시 책상다리를 하고 공부하는 모습이나 학교로 출근할 때나 집으로 돌아갈 때나 거리가 똑 같은 것처럼 걸리는 시간도 항상 같았던 것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녀들을 언제나 자애와 덕화로써 훈육하시는 어머님이시지만 경우에 따라 엄하시기도 하셨다. 내가 열여덟 살 때의 일이었다. 동네 애들하고 윷놀이를 하고 되어 ‘모’를 내우려고 집에서 종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어머님한테 들켜 버렸다. 어머님은 종지를 뺏으시고 “이 망할 녀석아!” 하시면서 종지를 방바닥에 내던지시자 산산조각을 내었다. 나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다시는 아니할 것으로 맹세를 했다. 또 아버님은 담배를 심히 피우셨다. 기나긴 겨울 밤 방에서 담배를 피워 놓으면 천장에 연기가 자욱해서 보이지를 않을 정도였고, 그 담배연기로 인해 어머님은 늘 천식을 앓으셔야 했다. 어머님은 나더러 “늘랑 후제 담베랑 피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 말씀 이제도 귓전에 쟁쟁하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되돌아본 세월〉〈1〉회 차, 3월 6일)며 어머니를 회고하고 있다.

성장한 후 김열(金烈) 여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천욱·명택) 3녀(명순·영숙·영재)를 두었다.

아버지한테서 천자문을 배우고, 강순찬(姜純燦) 훈장으로부터《명심보감》등 한

문을 배웠다. 고향 마을에 새로 개량서당인 보성서당이 설립되고 난 후 야간강습회에서 최봉조(崔鳳祚) 선생으로부터 수학 등을 배우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를 계기로 신학문을 배워야겠다는 신념으로 일본에 계신 형님 현상흠(玄商欽)을 찾아 대판으로 건너갔다. 일본 생활을 하면서 학대받는 동포의 서러움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백수하방법률사무소(白須賀芳法律事務所) 서기로 일하면서 공부하여 반 년 후에는 경판상업학교(京板商業學校) 시험에 합격하여 다니게 되었다. 졸업시험 이틀 전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시험을 치르고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관서대학 전문부 법률학과(關西大學專門部法律學科)에 입학했다. 주요 약력은 아래와 같다.

1920. 음 8. 16.	애월읍 어도리 구몰동에서 태어남[부: 연주현씨 봉준(延州玄氏 鳳俊), 모: 제주 양씨 보아(濟州梁氏 寶娥)]
1944. 1. 20.	일본 관서대학전문부 법률학과 수료
1946. 2.~1946. 10.	제주제일중학교(오현중학교) 교사
1947. 9. 1.~1951. 8. 18.	동국대학 문학부 국어국문과 졸업
1951. 11.~1952. 5.	제주중학교 교사
1952. 6. 1.~1955. 6. 29.	제주초급대학 전임강사
1955. 6. 30.~1980. 1. 14.	제주대학 전임강사~교수
1955. 4.~1980. 1.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장·교무과장·법문학부장·지역개발학부장·교육학부장
1962. 8. 15.	면려포장 받음
1962. 12. 31.	제1회 제주도문화상 받음
1967. 3.~1975. 6.	제주대학 제주도문제연구소 소장
1969. 10. 15.	문교부장관 표창 받음
1972. 12. 5.	국민훈장 목련장 받음
1975. 2. 25.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 취득

1975. 6.~1979. 2.	제주대학 제주도문화연구소장
1977. 5.~1978. 7.	한국언어문학회 회장
1979. 3.~1980. 1.	제주대학교육대학원 원장
1980. 1. 15.~1982. 2. 28.	제주대학 제5대 학장
1982. 3. 1.~1985. 8. 31.	제주대학교 초대 총장
1985. 8. 31.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음
1986. 5. 1.~1991. 4. 30.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습관장
1991. 2. 23.~1995.	제주방언연구회 회장
2002. 11. 20.	동숭학술상(공로상) 받음
2004. 1. 2.	사망

연암 선생은 시대가 전쟁이 와중이라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공부에 전념할 수도 없었고, 조국이 해방되자 그 해 11월에 귀국하여 1946년 봄에 설립되는 오현중학교의 전신인 제주제일중학교에서 1년여 동안 국어 교사를 하였다. 국어는 모두 싫어하는 과목이라 자원해서 맡았지만 공부한 적이 없는 과목을 가르친다는 게 가책[2]이 되어 서울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형님과 의논하고 공부를 더할 생각으로 상경하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과에 입학하였다.

교우로는 동국대학생 때의 최학선(崔鶴璇)과 전장에서 만나 정병욱(鄭炳昱)이 있다. 이들과의 관계는 〈되돌아본 세월〉(〈5〉회 차, 3월 20일자)에서 아래와 같이 회고하고 있다.

---

2) "모두들 국어, 국사 과목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주로 일본 유학생 출신인 교사들이 일제 당시 우리의 글과 역사를 배울 수가 없었다. 따라서 서로 담당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그러다 결국 국어과목을 맡고 말았다.", "2학기가 되자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배운 바가 전혀 없는 과목을 그때 그때 공부하며 가르친다는 것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에 만족하여 이대로 지낼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공부를 해서 새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날을 고민했다."(한라일보, 〈되돌아본 세월〉 5회, 3월 20일).

나는 재학 시절 함경도 출신 최학선(崔鶴璇)과 제일 친하게 지냈다. 최학선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졸업 후 고등고시 교육행정과에 합격, 해방 후 동대 출신으로서는 제일 처음 모교의 전임강사가 되기도 했다. 그는 4・19 이후 행정계로 진출해 체신계통의 요직을 두루 지내다 지난 90년 아깝게 작고했다.

당시 최학선과 나는 허영호(許永鎬) 학장의《조선어기원론》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회계장부로 5권 정도 되는 허 학장님의 강의노트를 둘이서 정리[3]해 드리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허 학장님은 정인보(鄭寅普) 선생 등과 같이 6・25 당시 납북되셨다. 나는 그때 무척이나 슬펐다.

교외의 친우로서는 서울대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의 정병욱(鄭炳昱)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학도병 당시 나와 같은 중대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친구였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우리는 가끔 만나면서 학우로서 가깝게 지냈다. 후에 정병욱 씨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교수로 재직해 있어서 내가 제주대학에 교수로 있는 동안에도 교류를 많이 했다.

제주대학과의 인연은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제주도내 유지들과 더불어 학술강습소인 제주대학원(濟州大學園) 개설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1952년 도립제주초급대학 인가, 1955년 4년제 도립제주대학으로 인가받을 때까지 학교 행정에 관여하였다. 4년제가 되어서야 교수들이 학교 사무를 보는 일이 없어져 오로지 전공에 따라 연구하고 교수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를 방언 조사를 하게 된 것도 학교 행정에서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연구소장, 대학원장 등 학내 여러 보직을 거쳤으며, 1980년에는 제5대 제주대학장을 맡게 되고, 2년 후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과 동시에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어 학교 최고 책임자

3) 허영호(許永鎬) 지음, 김용환 엮음(2014:11)의《조선어기원론》(정우서적) '서언'에, "끝으로 원고정리 정사淨寫에 동국대 학생 현평효玄平孝, 최학선崔鶴璇 양군兩君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에 내 사의謝意를 표하며"라는 구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로 학교 행정을 펼치기도 하였다. 5년 반 동안 학장과 총장이라는 학교 책임자로서 학교 발전에는 이바지하였겠지만 학문적 공백[4]은 채울 수는 없었다.

정년퇴직 후 1986년 5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습관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2004년 1월 2일 이승에서의 무거운 짐을 부려놓았다.

그동안 제1회 제주도문화상(1962)을 비롯하여 국민훈장 목련장(1972), 국민훈장 무궁화장(1985), 동숭학술상(공로상, 2002)을 받기도 하였다.

2.2. 방언학자로서의 삶

〈되돌아본 세월〉 5회 차[5]에 따르면, "(제주제일중학교) 개교 후 수 개월 동안 나 자신도 참으로 괴로움도 어려움도 잊었다. 그런데 2학기기 되자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배운 바가 전혀 없는 과목을 그때그때 공부하며 가르친다는 것도 양심에 꺼리는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에 만족하여 이대로 지낼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공부를 해서 새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날 고민을 했다."라 하여 동국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배경을 술회하고 있다. 1951년 제주대학과 인연을 맺었으며, 그 동안의 연암 선생의 '연구 업적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 "아버님! 이 글을 쓰면서 와병 중이신 아버님을 가끔 제주에 내려와 아버님과 한 방에 누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일이 새삼 떠오릅니다. 거동이 어려운 와중에도 누워서도 책을 보고 계셨고, 가끔은 제주대학의 학장, 총장을 맡는 바람에 학문적으로 더 많은 걸 이루지 못하였다고 안타까워 하셨죠. 평소 말씀이 적으셨던 아버님도 그때에는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많이 하시곤 하셨습니다." 《교육제주》 130호:74)

5) 〈한라일보〉 1993년 3월 20일 7면 〈5〉 '국학에서의 길(상)'.

1962,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1962, 〈방언학상에서의 제주도〉, 《제주도》 1, 제주도.

1962, 〈방언과 방언학의 과제〉, 《제주도》 6, 제주도.

1963, 〈제주도방언 'ㆍ'음 소고〉, 《무애양주동박사화탄기념론문집》, 동국대.

1964, 〈제주도방언 'ㅐ [ɛ] '음에 대하여〉, 《국문학보》2,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64, 〈제주도방언의 단모음 설정〉, 《한국언어문학》 2, 한국언어문학회.

1966, 〈제주도방언 형태소의 이형태에 대하여〉, 《가람 이병기박사송수기념론문집》, 동간행위원회.

1968, 〈국어의 Phrase Structure에 대하여〉, 《이숭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8, 〈제주도방언의 언어층위학적 고찰〉, 《제주도》 36, 제주도.

1968, 〈제주도방언에서의 '나물' 어사에 대한 어원적 고찰〉, 《제주도》37, 제주도.

1969, 〈제주도방언에서의 '나무'와 '나물' 어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문집》7·8, 동국대 국어국문학회.

1970,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 《국문학보》 3,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71, 〈제주도방언 형태구조의 조사연구〉(문교부보고서).

1971, 〈제주도방언의 언어층위학적 고찰〉, 《장암지헌영선생회갑기념논총》, 동간행 위원회.

1971, 〈제주도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 제주도교육연구원.

1971, 〈탐라의 학예・언어・종교의 연구〉(공동), 《논문집》 3, 제주대학.

1972, 〈'탐라'의 어의에 대하여〉, 《제주도》 53, 제주도.

1973, 〈제주도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논문집》 6, 제주대학.

1974, 〈제주도방언의 활용어미와 문헌어의 비교연구〉(문교부보고서).

1974, 〈제주도방언의 정동사어미연구〉, 동국대 대학원(학위논문).

1975, 《제주도방언의 정동사어미연구》, 아세아문화사.

1975, 〈고려가요에 나타난 '-고시-' 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3, 국어학회.

1976, 《제주도방언의 정동사어미연구》, 아세아문화사.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24

1977, 〈제주도방언의 존대법〉,《국어국문학》74, 국어국문학회.

1977, 〈제주도방언의 명령법 어미〉,《성봉김성배박사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9, 〈제주도방언의 '-저・-주' 어미에 대하여〉,《월암박성의박사환력기념논총》,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79, 〈제주도방언 연구에 대한 검토〉,《방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79, 〈제주도방언 연구에 대한 검토〉(Ⅱ),《방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79, 〈제주도방언 연구에 대한 사적 고찰〉(상),《제주도》76, 제주도

1980, 〈제주도방언 연구에 대한 사적 고찰〉(하),《제주도》77, 제주도

1982, 〈방언〉,《제주도지》하, 제주도.

1985,《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정정본), 태학사.

1985,《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1986, 〈제주도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국어생활》6, 국어연구소.

1987, 〈제주도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제주도연구》4, 제주도연구회.

1989, 〈탐라 언어의 원류〉,《제우문화》3,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총학생회.

1990,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 언어의 원류〉,《제우문화》4,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 총학생회.

1991, 〈제주도방언 존대법의 특징: 표준어 존대법과 비교하여〉,《새국어생활》1-3, 국립국어연구원.

1992, 〈제주방언의 보존 전승 방안〉,《제주도》92, 제주도.

1992, 〈제주방언의 보존 전승을 위하여〉,《북제주》75. 북제주군.

1993, 〈방언〉,《제주도지》3(공동), 제주도.

1995,《제주어사전》(공동), 제주도.

2011,《제주어 조사・어미 사전》(공동),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4,《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공동), 도서출판 각.

연구 업적 44편 가운데 1966년의 〈국어의 Phrase Structure에 대하여〉 1편을 제외하면 모두 제주방언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2011년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과 2015년의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은 제자 강영봉이 정리하여 연암 선생과 공동 명의로 출간한 책이다.

이 연구 업적 목록 가운데 1962년의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과 1985년 《제주도방언연구》 논고편은 가장 주목해야 할 업적이다. 1962년의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제주도 일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이며, 1985년의 《제주도방언연구》 논고편은 정년퇴임을 앞둬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 가운데 15편을 추려 묶은 책이다.

연암 선생의 제주방언 조사는 1956년부터 1958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 〈되돌아본 세월〉 〈17〉회 차에서 조사 경위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1956년 1월에는 현지인들의 자연스런 대화에서 방언 어휘를 수집해 보려고 1주일간 구좌읍·성산읍 방면으로 돌아다녔다. 이 자연스런 대화에서 어휘를 수집한다는 것은 무한정의 시간과 많은 경비를 소요하므로 지양했다. 그래서 제1차로 고어요소가 많은 말, 'ᄋᆞ'음으로 발음되는 말 등 약 2천 어휘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그 어휘들을 조사 카드에 기입하고 천문·지리·방위·인륜·신체 등등 부문별로 철했다. 부문별로 철함은 전후 말이 연관이 있어서 질문하고 응답하기에 편하고 또 그와 관련된 어휘들을 더 수집해낼 수 있겠기 때문이었다. 이 1차 조사 항목 약 2천 어휘를 1956년 3월부터 7월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은 물론 강의 없는 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도내 12개 지점 즉 노형(老衡), 어도(於道), 조수(造水), 인성(仁城), 화순(和順), 하원(河源), 서홍(西烘), 태흥(泰興), 표선(表善), 수산(水山), 세화(細花), 조천(朝天)에서 60, 70세 노인들을 상대로 조사했다. 물론 어패, 어로에 관한 어휘는 각기 조사 지점의 부근 어촌을 찾아가 조사하곤 했다.
>
> 제2차에는 방언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말들 3천여 어휘를 선정했다. 이 3천이나 되는 어휘를 1956년 8월부터 57년 3월까지 도일원에 걸쳐 획정한 7개 지점에서 조

사해내었다. 새로 획정된 7개 지점은 노형(老衡), 조수(造水), 인성(仁城), 서홍(西烘), 가시(加時), 수산(水山), 김녕(金寧)이었다. 이렇게 조사 지점을 2차 조사 이후에 줄인 것은 1차 조사한 어형들을 검토한 결과 특수한 물명 따위의 말을 제외하고는 별로 조사 지점 간의 언어 차이가 없어서였다. 제3차에는 2천 2백여 어휘를 1957년 3월부터 7월까지, 제4차에는 1천 4백여 어휘를 1957년 8월부터 9월까지 각각 조사해내었다. 그리고 제5차에는 1958년 12월에 일부 어휘에 대해 확인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어휘를 조사하고 정리된 자료는 "이숭녕 선생의 추천으로 출판 보조비가 나와서 1960년 6월부터 조판하기 시작하여 1962년 1월에 겨우 저서가 햇빛을 보게 되어졌지, 만약 그 보조비가 없었더라면 이런 까다로운 학술서적의 출간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한라일보〉 〈19〉회 차 인용)라 회고한 바 있다.

이숭녕 선생도 '자료편' '서문'에서, "도내의 해안선을 따라 또는 산간의 지점을 선정하여 정력적인 자료의 채집을 하여 거의 남김 없는 역저를 내게 된 것 학계의 성사가 아니고 무엇이랴. 한 섬을 이쯤 성실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학계 초유의 사실이며 금후도 드물 것이라고 하겠다."라 평가하였으며, 〈제주신문〉 기사(1962. 2. 12.)에서도, "10개 성상을 하루같이 청춘을 불사르며 이룩해 논 금자탑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에는 언어연구에 귀중한 구실을 맡을 1만여 어의 우리 방언이 수록되어 있는데 국판 6백여 페이지에 이르는 사전형의 집대성으로서 실로 이 책 한 권이 우리의 고전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빛을 남길 것이다."라 하였다.

이 〈자료편〉에 대한 연암 선생 스스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라일보〉 〈19〉회 차, 5월 12일)하고 있다.

첫째로 사전식 방언자료집이면서 지역적 분포를 조사해낸 자료집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다. 석주명(石宙明) 씨의 《제주도방언집》에서의 7천여 어형, 박용후(朴用厚) 씨의 《제주방언연구》에서의 9천여 어휘, 어느 것이나 어느 한 지역에서의 수집에 그친 것이지 그들 어휘를 도내 지역별로 분포 상황을 조사해 본 자

료집들이 아니었다. 이에 비하면 이 〈자료집〉은 어휘의 수집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휘의 지역별 분포 상황까지 조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각 어휘에 대해 표준어로 대역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식으로 그 어의를 설명해 놓았다는 것이 다른 방언집과 크게 다른 점이었다.

둘째로는 제주도방언에 보존되어 있는 고어와 희귀한 말들을 거의 남김없이 수집해 내었다는 점이다. 나는 1962년에 이 'ᄋᆞ'음어를 집계하여 제주방언에서 'ᄋᆞ'음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본 일이 있었다. 집계 결과 'ᄋᆞ'음어 수는 2901어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제주방언에서의 'ᄋᆞ'음어는 이것으로 완전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고어들도 거의 수록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로 제주방언 철자법(맞춤법)을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방언의 한글 철자는 〈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에 의지하고서 발음대로 적되 방언 어법에 맞도록 했다. 방언의 현실 발음과 어법에 따라 체언 '밭[田], 낮[晝], 낯[顔], 볕[陽]'들은 각각 '밧, 낫, 눗, 벳'과 같이 철자했고, 용언 '깎다[削], 낮다[低], 짖다[吠]' 들은 '가끄다, 누잡다, 주끄다'와 같이 철자했다. 이렇게 방언 어법에 맞도록 철자법을 확립해 놓았다.

이 〈자료편〉 발간으로, 제1회 제주도문화상을 받았으며, 1973년 처음 실시되는 교류교수제도에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한 26명의 교수 가운데 유일하게 선발되는 영예도 '자료편'에서 연유한 게 아닌가 하고 추측[6]하고 있을 정도

6) "문교부는 1973년 2학기부터 지방대학 교수와 서울지역 대학 교수와의 교류 근무제를 실시했다. 나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근무할 것으로 지망서를 제출해두었다.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교수가 희망했다. 26명이나 되었다고 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많은 분 중에서 나 혼자만 받기로 선정했다. 국어국문학과 교수들과 당시 문학부장이었던 전광훈(全光勳) 교수가 나를 1번 순위로 학장에게 추천했고, 또 고병익(高柄翊) 학장도 내가 1962년에 발간한《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한라일보〉 1993년 4월 20일 〈되돌아본 세월〉 〈13〉회 차.)

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업적이다.

이 '자료편'은 1985년 재출간되었다. '수정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초판에서 그 어휘 설명이 잘못된 데를 바로 잡고, 뒤에 붙여 있는 정오표의 것들을 다 정정하고 해서 이 '수정판'을 내놓는 바이다. 그리고 1956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7개 지점 내지 12개 지점에서 각각 임지조사의 질문에 친절하게 응답하여 주신 피조사자들에게 고마운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도 초판 때에 그 명단을 수록했어야 할 것을 빼뜨려졌었는데, 이 수정판 말미에 붙임으로써 사의를 표하려 한다."하여 1962년의 정오표를 수정하고, 제보자 명단을 추가하고 있다. 이 명단에서 조사 기간, 조사 마을, 제보자 수를 알 수 있다.

횟수	조사 기간	조사 마을 수	제보자 수
1차 조사	1956. 3. 30.~1956. 7. 30.	17개 마을	38명
2차 조사	1956. 8. 13.~1957. 3. 8.	12개 마을	40명
3차 조사	1957. 3. 30.~1957. 7. 27.	10개 마을	35명
4·5차 조사	1957. 8. 18.~1958. 12. 26.	17개 마을	72명
총계	1957. 8. 18.~1958. 12. 26.	56개 마을 (실제 33개 마을)	185명 (중복 제보자 포함)

《제주도방언연구》 논고편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연구 업적을 정리한 책으로 15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 방언에 관한 연구 논집을 간행하겠다고 이우출판사에서 말이 온 지는 7, 8년이나 되는 듯하다. 논문을 넘기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도 워낙 게으른 성미이어서 차일피일하다가 10.26 사태 직후 대학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후부터는 논문을 꺼내 볼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하기야 필자로서는 이 대학의 창설 때부터 줄곧 학교 일에 시달려 온 터이지만, 책임을 맡은 후 회갑이 지나고, 또 이번 학기로 정년퇴임을 맞게 된다. 주변에서 이제는 논문들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느냐는 권유에 못 이겨서 이미 발표한 논문들을 일단 정리"한 것이며, "약 20년간에 걸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쓴 글들이어서 방법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문 길이에 있어서도

들쭉날쭉이 너무 심하다. 내용적으로 보면 형태론 분야의 것이 여섯 편, 어휘론 분야의 것이 세 편, 음운론 분야의 것이 네 편이다. 이 외에 제주도 방언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의 것과 방언 연구에 대한 요약적인 검토의 것을 각각 한 편씩 골라 실었다. 끝으로 제주도 방언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격어미와 활용어미 및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1910년대로부터 1984년도까지의 제주도 방언에 대한 논저 목록을 부록으로 게재"하고 있다. 그 목차는 아래와 같다.

서문

Ⅰ. 형태론적 연구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어미 연구

제주도 방언의 존대법

제주도 방언의 명령법 어미

제주도 방언의 '-저 · -주' 어미에 대하여

고려가요에 나타난 /-고시-/ 형태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 형태소의 이형태에 대하여

Ⅱ. 어휘사적 연구

제주도 방언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어사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 어사의 층위학적 고찰

탐라 언어의 원류

Ⅲ. 모음에 대한 연구

제주도 방언 'ㆍ'음 소고

제주도 방언 'ㅐ'[ɛ]음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의 단모음 설정

제주도 방언의 음운

Ⅳ. 방언 개관 및 연구에 대한 고찰

제주도 방언 개관

제주도 방언 연구에 대한 검토

부록

Ⅰ. 격어미 및 활용어미

Ⅱ. 논저목록

찾아보기

2.3. 교육행정가로서의 삶

연암 선생의 제주대학과의 인연은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제주도내 유지들과 더불어 학술강습소인 제주대학원(濟州大學園) 개설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1952년 도립제주초급대학 인가, 1955년 4년제 도립제주대학으로 인가받을 때까지 학교 행정에 관여하였다. 4년제가 되어서야 교수들이 학교 사무를 보는 일이 없어져 오로지 전공에 따라 연구하고 교수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를 방언 조사를 하게 된 것도 학교 행정에서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연구소장, 대학원장 등 학내 여러 보직을 거쳤으며, 1980년에는 제5대 제주대학장을 맡게 되고, 2년 후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과 동시에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어 학교 최고 책임자로 학교 행정을 펼치기도 하였다. 1985년 8월 퇴임 후에는 1986년 5월부터 1991년 4월까지 5년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습관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1951년	제주대학원(濟州大學園)
1952년	도립제주초급대학 개교
1955년~1980년	4년제 도립제주대학 교수
1980년~1982년 2월	제5대 제주대학장
1982년 3월~1985년 8월	제주대학교 초대 총장
1986년 5월~1991년 4월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습관장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31

연안 선생은 제주대학 제5대 학장에 취임하며, '종합대학 승격'을 제1목표로 정하여 하여 제주대학 운영에 매진하였다. "기왕 임명장이 나왔고 이 대학의 책임을 맡게 된 이상 종합대학 승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성취하는 것도 이 대학을 위한 나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렇다. 임명장을 받고 와서 종합대학 승격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뛰는 것만이 지금 처지의 나의 유일한 나갈 길이라고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회고나(〈한라일보〉 〈29〉회 차, 6월 16일), 〈한라일보〉의 〈되돌아본 세월〉에서 '종합대학 승격 추진'을 11회나 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력의 결과 정부는 1981년 7월 28일 1982년부터 제주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연암 선생은 학장 재임 기간 동안 학위 수여식 날짜를 2월 20일로 고정한 일등을 비롯하여 1981년 2월 28일 제주도 환경과 특성에 맞는 '탐라문화연구소', '방사능이용연구소', '아열대농업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등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법정 연구소로 설치함으로써 학술진흥과 학풍 진작에 기여하였다.

연암 선생은 또 1982년 3월 1일 종합대학으로 출범하는 제주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어 3년 반 동안 제주대학교를 이끌었다. 퇴임사에서, "첫째로 단과대학 및 학과의 증설과 시설이 대폭적인 확충, 둘째 교육의 내실화, 셋째 교수의 연구 활동을 조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학술 진흥을 촉진하려 했고, 넷째 대학 행정의 효율화, 다섯째는 인화·협조의 풍토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늘날 뜻한 바를 못 다 이룬 아쉬움도 있지마는 그래도 당시 구상과 크게 어긋남이 없이 대체로 순조로운 결실을 보게 되었음은 떠나는 본인으로서 흡족해 하는 한편 그 동안 각계의 절대적인 성원과 제대 가족 여러분의 도움이 컸었음을 새삼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공대학이 소원대로 신설되었는가 하면 사대부속중고등학교의 설립, 실험실습 기자재의 대폭적인 도입 그리고 예산 확보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3천평 규모의 중앙도서관의 신축은 보람되고 값진 일이며 지혜롭고 인자하고 날쌘 사슴을 상징물로 정하여 제대인의 기상을 나타내기 위했음도 영원히 기념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근자 국제적 또는 전국 규모의 학술회의와 연구 활동이 법정 연구소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32

등의 주관으로 활성화되어 감도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라 회고하고 있다.

연암 선생은 정년퇴직 후 1986년 5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습관장을 지내기도 했다. 관장을 지내며 학생운동의 활성에 많은 공을 들여,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총학생회의《제우문화》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 국어과의《한얼》창간과 발간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제주지역학습관장으로 있으면서 제주방언연구회[7]를 결성하여 회장을 맡아 10여 회의 연구발표회[8], 학술

7) 이 '제주방언연구회'는 1991년 2월 23일 방송통신대학지역학습관(옛 도립도서관 서쪽 옛북군청 자리)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발족되었다. 임원진 구성은 회장 현평효, 부회장 김홍식 강정희, 총무이사 강영봉, 연구이사 최규일, 편집이사 송상조, 감사 김광웅 최학규 등이다.

8) 10회의 연구 발표회와 1회의 초청 학술강연회를 가졌는데 그 내용은 표와 같다.

회차	일시	주제(발표자)
1회	1991. 7. 25.	제주도방언연구의 사적 개관(현평효) 제주도방언의 파생접사 연구(송상조) 국어문법의 총괄기술에 대하여: 특히 제주방언가 관련하여(고영근)
2회	1991. 10. 12	한·일 접미사 일비교: 인칭접미사를 중심으로(김홍식) 제주도방언과 몽골어와의 비교시론: 마정 엉휘를 중심으로(강영봉)
3회	1992. 1. 13.	제주방언의 부정응답 표현에 대하여(강정희) 중세국어 'ᄇᆞᆮ다'와 'ᄇᆞ터'의 의미에 대하여(김태곤)
4회	1992. 5. 20.	제주도방언의 'ㅇ'·'ㄴ' 형태소(송상조) 고전 어학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지도 내용의 분석연구(김광웅)
5회	1992. 6. 11.	제주도방언의 반복복합어 형태구조분석(강공택) 제주도방언의 상대높임법 연구: 'ᄒᆞ여체' 어미를 중심으로(고창근)
6회	1992. 9. 25.	제주도방언의 음절신장현상에 관한 연구(현계철) 〈제주계록〉의 이두문과 이두에 대한 고찰(오창명)
7회	1992. 11. 28.	제주방언에 대하여(성낙수)
8회	1993. 2. 24.	제주지역어의 중화현상에 대하여(홍성혜)
9회	1993. 6. 12.	제주도방언 형태소 '-서'에 대하여(문순덕) 제주도방언 표기법에 대한 토의
10회	1993. 7. 27.	제주지역어의 구개음화에 대하여(오승훈)

강연회[9] 등을 열기도 하였다. 이때 주도적으로 '제주어표기법'을 마련하고, 제주도와 협의하며 《제주어사전》(1995)을 발간하는 일에도 헌신하였다.[10]

3. 갈무리

전우인 서울대학교 정병욱 교수의 〈연암의 화갑논문집을 기리는 글〉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갈무리한다.

> 연암은 나의 40년 가까운 지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생애에서 가장 처참했던 시기에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이기도 하다. 한 인간의 참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생과 사의 가름길을 헤매는 전장일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연암의 인간됨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연암은 40년 전 학도지원병이라는 일본 병정 노릇을 하던 그 때나, 제주대학 학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다.
>
> 겉으로 꾸밀 줄을 모르고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요령을 부릴 줄 모르는 대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정직한 마음가짐 탓일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정직으로 일관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거의 성자에 가까운 수양을 쌓고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권모·술수·아첨·교만, 이런 등속의 낱말들은 연암의 생애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의 마음 속에 기록된 일이 없었을 것으로 믿는다.

9) 학술강연회는 1992년 11월 7일 이기문 교수의 〈제주방언 속의 몽골어 요소에 대하여〉가 진행되었다.

10) "본래의 제주어가 사라지기 전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수집은 물론 사전으로 편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주문화 유산을 전승하는 길이라 여겨, 제주도 당국과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다. 그때마다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쳐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 애타는 심정을 몇 년 가슴에 지니고 있어야만 했다. 3·4년이 지난 1993년 후반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주어 조사' 용역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제주방언연구회'와 용역 체결이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법인체 등록의 미비로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용역이 이루어졌다."(1995, 《제주어사전》 〈조사 경위〉 중에서)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34

연암 선생에 대한 기억들

김병택(제주대학교 명예교수)

1. 책 표지의 '블룸필드'

1968년 5월 초 어느 날, 내가 도서관을 향해 걷고 있을 때였다.

"김군, 잠깐만"

나를 부르는 소리인가 싶어 도서관 건물 이층을 쳐다보았더니, 김영돈 교수가 누런 서류봉투를 들고 사무실 창가에 서 계셨다. 교수가 학생을 부를 때 성(姓)에다 '군'(君)자를 붙이는 것은 과거에도 통용되던 호칭 방식이다. 김 교수의 부탁은, 연암 선생 댁에 가서 이 서류봉투를 전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신입생을 갓 벗어난 국문과 2학년 학생이었다.

논문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인용할 내용을 카드에 옮겨 쓰는 작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논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기 때문이다. 대학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연암 선생 댁으로 갔을 때, 연암 선생은 바로 그러한 작업을 하고 계셨다.

마당가에 서서 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린 뒤, 나는 임무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

암 선생에게 서류봉투를 드렸다. 서류봉투를 받아든 연암 선생은 웃으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방안에 들어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 그 틈에, 나는 궁금한 나머지 책상 위에 놓인 검정색 책의 표지를 보았다. 블룸필드라는 저자의 영문 이름과 '*Language*'라는 제목이 내 시야로 들어왔다.

어떤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상상력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한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생각하는 실제적 상상력과, '다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상징적 상상력이 그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해 보면 이렇다. 세상에는 눈앞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다른 체계 속에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아마 후자 쪽이었다.

연암 선생 댁에 갔다가 돌아온 바로 그날, 나는 대학도서관에서 블룸필드의 *Language*를 대출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읽은 것은 겨우 앞부분뿐이었다. 언어학 쪽의 어휘가 낯설었고, 긴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원서를 읽기 위한 영어 공부에 돌입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내가 전공했던 분야는 현대문학 이론 중에서도 '시론'이다. 지금에는 좋은 번역서들이 출간되어 학생들이 큰 불편함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대학 강의를 막 시작했던 1982년만 해도 읽을 만한 번역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번역도 대부분 일역본을 번역한 중역이었고, 심지어 어떤 번역에 대해서는 원서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불만이 시론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러한 번역서일수록 거기에는 주술 호응조차 엉망진창인 문장들이 수두룩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론을 공부하는 나에게 영어 원서를 읽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영어가 시론을 공부하는 좋은 수단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나로 하여금 영어로 시론을 공부하게 했던 계기도 중요하다. 나는 그 계기를, 블룸필드의 *Language*를 앉은뱅이책상에 펼쳐 놓고 논문에 인용할 내용을 카드에 옮겨 쓰시던 연암 선생의 모습에서 찾는다. 누가 그것을 동일시 현상이라고 말한다면, 물론 나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36

는 그 말에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2. 소탈함과 관심

"타인은 지옥"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다. 그런 주장의 이면에는, '나'와 타인 사이의 투쟁은 거의 숙명적인 것이며, 타인의 주체성을 허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의 주체성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연암 선생에게는 아예 그러한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연암 선생의 성품에서 기인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학교수에게는 강의 주제와 관련되는 전문 지식 말고도 강의를 뒷받침하는 다른 요소들이 함께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의의 '다른 요소'란 옷차림, 음성, 판서 글씨, 인격 등을 두루 포괄하는 말이다. 연암 선생의 옷차림은 단정했고, 음성은 부드러웠으며, 판서 글씨는 정확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연암 선생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기호는 그러한 강의 요소들을 뛰어 넘은 자리에 있다.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소탈함이다.

제주대학에 부임하기 전에, 나는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방학이 되면 나는 대학으로 연암 선생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연암 선생은 이런저런 것들, 즉 서울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지, 석전 선생은 잘 계시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물으셨다.

1984년 2학기 때《두시언해비주(杜詩諺解批註)》,《한국문학상의 두시 연구》등의 저자인 석전(石田) 이병주(李丙疇) 선생이 제주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분은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가르침을 받았던 은사님이기도 하다. 연락이 와서 총장실에 갔더니 연암 선생은, 석전 선생이 제주에 오셨는데, 저녁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두 분의 대화는 주로 대학과 관련된 문제들, 가령 교수들의 연구실 확보나 교수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37

들의 연구 논문 편수와 같은 것들에 집중되었다. 당시, 제주대학은 한 연구실을 두 교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고, 지역 일간지는 교수들의 연구 논문 편수가 전국 대학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를 내보낼 때였다.

내가 들었던 대로, 두 분은 우정 깊은 친구 사이임이 확실했다. 꽤 많은 술잔과 유쾌한 웃음이 오갔다. 자리를 파할 시간이 되었을 때, 연암 선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석전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석전!, 앞으로도 이 김 선생 잘 지도해 주세요"

몇 년 전, 어떤 수필집에서 나는 '관심의 인간학'이란 글을 읽었다. 연암 선생은 그러한 분이었다.

3. 행정가로서의 연암 선생

1980년 4월 1일부터 연암 선생은 단과대학인 국립 제주대학의 마지막 학장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81년 2월 28일, 문교부는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국립 제주대학의 탐라문화연구소, 아열대농업연구소, 방사능이용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등 네 개의 대단위 연구소를 법정연구소로 인가한다. 그것은 대학 당국이 일 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벌인 절충의 결과였다. 문교부가 네 개의 대단위 연구소를 한꺼번에 법정연구소로 인가한 것은 지방 국립대학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연암 선생은 1982년 3월 1일, 국립제주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발령을 받은 뒤의 총장 취임사에서도 법정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 본인은 이 대학의 학장직을 맡은 후 네 개의 법정 연구소를 설치, 인가를 받았고 이 네 법정연구소는 앞으로 굳건히 키워 나가는 한편 교수들의 여러 분야의 연구 활동을 적극 조장하여 이 고장 학술 진흥을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이 학술 진흥

> 을 촉진시키는 한 방도로 앞으로 국제적인 학술대회 개최, 학술 교류, 교수 교류 등도 적극 추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
> (《제주대학교 30년사》(1952-1982), p. 500.)

해마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 연구소는 장기적인 학술진흥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그에 발맞추면, 교수들의 연구도 개별 연구에서 공동 연구로, 소단위 연구에서 대단위 연구로 전환되는 계기도 자연히 마련된다. 이것은 제주대학의 네 법정연구소들이 산학협동에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네 법정 연구소가 이룬 성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연구소의 법정화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나는 제주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에 대해 잘 몰랐지만, 1982년 신학기부터 제주대학에서 강의하기 시작한 뒤에는, 여러 교수들로부터 연암 선생이 세운 두드러진 업적이 바로 연구소를 증설하고 법정화를 이룬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은 연암 선생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평가의 근거이기도 했다.

4. 에필로그

기억을 드러내는 일은 과거를 돌아보는 일과 같다. 기억은 역사처럼 과거를 해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역사의 고전적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터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기억은 또 다른 형식의 역사이다.

끝으로, 연암 선생 탄생 100돌을 기념하는 이 모임의 의도가 잘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39

아버님에 대한 회고

현천욱(변호사, 연암의 가족)

아버님께서 홀연히 이 세상을 떠나신 지도 어언 16년이 흐르고 있다.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며 또는 광화문 소재 우리 사무실 근처 '주시경 마당' 공원을 산책하면서 국어국문학자이셨던 아버님을 그리워해 본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은 참으로 크지만,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각별하다 하겠다. 아버님과 50년 가까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아버님께 배운 교훈, 정신적 유산, 일화 등을 간단히 회고해 본다.

첫째, 아버님의 근면성이다. 어릴 적에 아무리 일찍 깨어나 봐도 아버님께서는 벌써 일어나셔서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계셨다. 그 때 책장을 넘기시던 그 소리,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아버님의 일과는 거의 일정하셨다. 세끼 식사를 마치면 15분 정도 다과를 드시면서 가족들과 담소 후 바로 서재로 들어가시면 다음 식사 전에는 거의 밖으로 나오시지 않으셨다. 어쩌면 책을 그렇게도 좋아하셨던지……. 쉼 없이 책을 읽고, 논문을 쓰시고, 고치시고……. 세상에 아버님처럼 학문을 즐기시던 분을 본적이 거의 없다. 자식들도 아버님을 따라서 당

연히 시간만 나면 책을 읽는 습관을 체득하게 되었고, 이것이 평생 자식들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둘째, 아버님의 관용 정신 및 용서하는 마음이다. 평생 아버님이 화내거나 큰 소리를 지르던 일을 본 기억이 없다. 타고난 성품이기도 하겠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어찌 속상하고, 화가 난 일이 한두 번이었겠나. 지금 와서 아버님의 비결을 생각해 보면 세상만사를 측은지심, 자비심과 큰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속에 다 녹여 낸 후 허허 하고 크게 한번 웃으면서 용서하고 넘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크게 야단치거나 잔소리하거나, 화를 낸 기억이 별로 없다. 그저 몸소 실천함으로써 자식들이 저절로 따라서 배우도록 더 큰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또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였다. 손해를 볼지언정 항상 남에게 폐를 안 끼치도록 조심하고, 정성껏 배려하는 마음을 솔선수범하셨다.

셋째, 교육 및 학문에 대한 치열함이다. 아버님께서는 평생 교육 및 학문(특히 제주어 연구)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신을 다 불사르셨다. 단적으로 공부 및 학문 이외에 취미는 하나도 없으셨다. 좋은 분들과 술은 즐기신 편이었다. 한번은 스승님이신 故이숭녕 박사님이 제주도 우리집에 오셔서 아버님과 식사와 술을 드신 적이 있는데 두 분이 밤새도록 즐겁게 양주 여러 병을 드시던 기억이 새롭다. 대학 총장하실 때 골프에 대한 권유도 많았지만, 골프는 물론 등산, 낚시 기타 일체의 취미생활이 없으셨다.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너무 학문에만 용맹정진하셔서 아버님과 도란도란 보낸 시간과 추억이 많지 않은 것을 못내 아쉬워하신다. 어쩌면 가족들로서는 재미가 없기도 하였으나 하여간 학문, 교육에 대하여 쏟던 열정, 집념, 진지함은 대단하셨다. 아버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철저한 프로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넷째, 국제화 마인드다. 아버님은 자식들에게 중, 고등학교 때부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3개 외국어는 독파하여야 한다고 수시로 강조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41

면 이러한 아버님의 혜안과 통찰력 덕분에 국제화 마인드가 생기고 일찍이 Law Firm 변호사의 길에 뛰어들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게 되었다. 하버드 법과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여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KIM&CHANG 법률사무소의 일세대 변호사로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조냥 정신이다. 아버님은 너무나도 검소하셨고, 조냥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다. 가족과의 외식은 학교 입학식, 졸업식 때, 또는 특별한 경사 날에만 하는 정도였다. 자식들이 해 드리지 않으면 항상 오래된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다니셨다. 그런 조냥 정신 덕택에 다섯 식구들 모두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아버님을 회고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어떠한 정신적 교훈,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아버님께서 남기신 다섯 가지 교훈의 뿌리는 아직도 그대로 소중하고 유효하다고 본다. 아버님, 저희들은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보람된 인생을 살고 있사오니, 하늘나라에서도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책 많이 보시고 편안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42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43

2부

연암의 학문

현평효의 제주방언 음운론
정승철(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제주방언 연구의 큰 산, 연암 현평효 교수를 기억하다
강정희(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연암 선생의 제주도 방언 어휘 연구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44

현평효의 제주방언 음운론

정승철(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 토박이 방언 연구자 현평효

延岩 玄平孝(1920~2003)는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현재는 제주시 애월읍) 출신의 국어학자다. 광복 전 일본 오사카의 京阪상업학교(야간부, 1937.4?~1940.3)와 關西대학(법률학과, 1941.4?~1944.1) 수학 그리고 광복 후의 동국대학교 재학(1947.9~1951.8) 기간을 제외하면 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제주도에 거주하며 활동하였다.

그는 1946년에 개교한 제주제일중학교(현재의 오현중학교)에 교사로 부임(6개월 근무)하여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국어"를 "자원하다시피" 담당하게 되면서 국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되돌아본 세월〉 5).[1]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사직 후 상경,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갔고 재학 시에 들어 "심취"한 양

1) 〈되돌아본 세월 제8화: 연암 현평효〉는 '한라일보'에 1993년 3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총 45회 연재되었던 "회고록 성격의 글"이다(강영봉 2019: 202). 해당 자료를 제공해 주신 강영봉 제주대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린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45

주동(1903~1977) 강의의 "학문적 영향"으로 인해 "古語學"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되돌아본 세월〉 6). 귀향한 뒤, 1952년에 갓 설립된 제주초급대학(제주대학교 전신)의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되어 교육 및 행정 일로 바삐 근무하다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195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어학 전공'을 "확정"하고 국어학 중에 제주방언 연구의 영역을 "개척"할 목적으로 본격적인 방언 조사를 수행하였다(〈되돌아본 세월〉 16).[2)]

그러한 방언 조사의 결과물로 "1만3천9백5語"(〈되돌아본 세월〉 17)의 방언형이 수록된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1962)를 발간하고 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십 편의 국어학 업적을 발표하였다. 이들을 연도별로 늘어놓고 일별해 보면 〈제주도 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1974)[3)]와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어미 연구〉(1975)[4)]를 경계로 그 이전에는 대체로 음운이나 어휘 형태사 관련 논문, 그 이후에는 문법 형태(특히 활용어미)나 방언 연구사 관련 논문이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평효의 음운론 연구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피려는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방언 'ㆍ'음 소고〉(1963)를 비롯해 그 전반기에 출현한 업적을 주 검토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5)] 물론 해당 시기에 그의 음운론적 관심이 한결같이 제주방언에 베풀어졌음도 예서 따로 언급해 둔다.

---

2) "1956년 1월"부터 시작된 그의 방언 조사는 대부분 "조사 사항을 미리 선정해서 현지에 나가 제보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기록"하여 수집하는 "臨地 調査"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제1차" 조사에서 "고어 요소가 많은 말, 'ㆍ'음으로 발음되는 말 등 약 2천 어휘"를 조사항목으로 선정한 것(〈되돌아본 세월〉 17)은 그의 방언학적 관심이 애초부터 통시적인 데에 놓여 있었음을 알려준다.

3) 이는 '현평효, 김홍식, 강근보'(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3인 공동 논문이다.

4) 이는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인데 기존 연구사에서는 대개 1974년도 업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위를 취득한 해가 1975년(2월)이므로 학계의 통례에 따라 여기서는 이 논문을 1975년도의 업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5) 다만 후반기의 업적이지만 '음운, 형태, 어휘'에 걸쳐 제주방언의 특징을 개관한 현평효(1982)만은 여기서의 논의에 포함한다. '음운'에 관한 한 이 논문은 '구개음화, 격음화, 경음화, 움라우트' 등의 통시적 음운현상을 다루고 있는바 개별 음운이나 체계에 대해 주로 언급한 다른 음운 관련 논문들과 차별된다.

2. 현평효의 제주방언

현평효는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교수로 재직(1955.7~1980.1)하는 동안 내내 제주방언 연구에 대한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 제주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국어학도로서 이 지역의 학술 자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다. 학술 자원 중에서도 제주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 개척해 보자는 의욕을 자연 갖게 되었다. … 방언 중에서도 제주 지역의 방언은 여타 어느 지역의 방언보다도 국어학상 특이한 점이 많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
> (〈되돌아본 세월〉 16)

특히 "古語가 많이 보존"된 제주방언은 국어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기에 그는 개척자와 같은 심정으로 방언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에게 '방언'이란 특정 언어변화의 수용 여부에 따른 지리적 분화의 소산이므로 제주방언이 지니는 독특함은 그러한 방언 분화의 당연한 결과물이었다.

> 방언이란 언어의 지역적 분파에서 생겨 나온 어느 한 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 A지역이 보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위에 처해 있다면 A지역의 방언은 B지역에 마구 전파되어 들어간다.[279면] … 언어의 전파력은 우위 지역에서 하위 지역으로 무제한하게 뻗쳐 나가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의 방언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제각기 보수력과 배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280면] … 이와 같은 자신의 방언을 유지해 나가려는 보수성이나 우위 지역의 방언일지라도 배제하려는 배타성은 지리적 형세와도 관계가 깊은 것 … 교통이 불편한 벽지나 절해고도인 '섬'에 고어를 많이 보유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281면] (현평효 1971b)[6)]

그가 보기에 제주도는 "절해고도"여서 타지로부터의 방언전파가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저지되는바 그 결과 제주방언이 새로운 언어변화의 물결에 침식되지 않고 "고어를 많이 보유"하는 특이점을 지니게 되었다는 말이다. '고어'도 시대에 따라 여러 단계(그의 용어로는 '層位')로 나뉘는데 그는 제주도가 처한 열악한 "지리적 여건"이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어사에서 제주방언에 "最古의 어형" 즉 가장 이전 단계의 고어를 남아 있게 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에워싸여 있는 絶海孤島이다. 그리고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거리상으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개신파의 말이 좀처럼 여행하여 들어갈 수 없는 절해고도, 중앙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 이것이 제주도 방언으로 하여금 특이한 존재가 되게 해 온 것이다. 한국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를 가리켜 고어의 보고니 국어학의 개척지 등등으로 일컬어져 온 것도 이런 지리적 조건과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데서였다. (〈되돌아본 세월〉 16)

> 문화 중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 또는 절해고도와 같은 지역은 가장 오래된 말들이 잔존 … 그러고 보면 제주도야말로 그 지리적 조건이 한국 어느 지역보다도 最古의 어형들을 보존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285면] (현평효 1971b)

그러하기에 그의 방언 연구의 목적은 당연히 각지 방언에서 그러한 언어변화의 "흔적"을 찾아 언어사를 "재건"하는 데 놓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오래 된 말들"을 무수히 포함하고 있는 제주도는 틀림없이 한국 방언 연구의 최적지였다.

---

6) 여기에 인용한 논문은 현평효(1985)에 재수록된 것이다(면수도 이를 따름). 인용 시 필요에 따라 문장부호나 띄어쓰기 등의 면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도 했음을 밝혀 둔다(이해의 어려움이 없는 한, 한자어는 대부분 한글로 바꿔 표기하였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6 페이지 48

> 방언 연구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대부분 매몰되어 버린 언어 형태의 諸층위를 재건해 내는 일이다.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露頭를 어느 지역에서 조사해 내어야 한다. 언어는 순차로 생성하여 왔다가 사멸하여 들어간다. 그러나 그 사멸하여 버리는 말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지역의 어느 구석에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든가, 그 말이 파생어 따위를 파생시키지 않았다든가, 그 말이 다른 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든가 하지는 않고 그 지역의 어디엔가에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8면] (현평효 1975)

> 언어지리학은 제주도와 같은 변방 도서 지역에 고대의 언어 형태나 고어가 많이 보존되어 있을 것임을 말해 주었다. 이렇게 고어가 많이 보존되어 있는 제주도 방언에 대한 연구는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성을 지닌다고 이숭녕 선생과 小倉進平은 주장했다. 역사언어학, 전통언어학적 방법의 시대인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제주도 방언 연구의 의의를 역사언어학적 측면에 두었던 것이다. 내가 조사하기 시작할 당시의 제주도 방언 연구의 목적도 여기에 두었었다. (〈되돌아본 세월〉 16)

위 서술에서 보듯 현평효는 방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역사언어학적 기술 그리고 그에 관한 언어지리학적 해명에 두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에게 있어 '방언'은, 하나의 독립된 언어 체계가 아니라 해당 언어의 역사적 변화를 밝히기 위한 보조 자료 또는 언어 화석(정승철 2013: 75)으로 인식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인식은 연구 생활 전반기에 매우 확고하였던바 그로 인해 이 시기에 집중된 그의 제주방언 음운론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단모음 'ᄋᆞ'나 '애'의 변화 또는 '나무(木), 나물(菜)'의 형태사 등 통시적인 것으로 한정하게 된다.

3. 현평효의 음운 연구 방법

하나의 형태소는 언제나 '형식(=기호)'과 '내용(=의미)'을 갖는다. 경우에 따라 어떤 형태소는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형식상의 변화[7]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를 음운론적 변화라 한다.[8] 따라서 여기서는 현평효의 음운 관련 연구 업적을 두루 살피되, 제주방언의 음운체계 및 그것의 변화를 관찰·기술한 논문뿐만 아니라 한 단어(ex. '나무')가 통시적으로 겪어 온 형식상의 변화를 추적·기술한 어휘 형태사 관련 논문을 모두 음운론으로 포괄하여 해당 업적들에 드러난 그의 연구 방법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1) 비교방언론

비교방언론이란 "한 언어에서 갈려나간 지역 방언형을 서로 비교하거나 또는 방언과 문헌을 비교하여 분화 이전의 형태를 재구하고 이로부터 각 방언으로 분화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방언학의 한 분야"(곽충구 2005: 73~74)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보면 아래 인용문에서의 "층위학"은, 언어변화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지역 방언 실현형과 문헌 출현형들을 종합적으로 대비·검토하여 각 방언형의 시간적 위치를 정립하는 데 목표가 두어졌으므로 비교방언론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한 語詞의 어형이 여러 어형으로 실현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얼른 결정을 내리기 곤란하다.[255면] … 이들 사이에 통시성을 인정할 경우, 어느 어형이 고대형이고 어느 어형이 중세어형, 근세어형인지 속단키 어려운 문제들이

7) 이는 해당 형태소를 구성하는 음운 요소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자체적 변화와 주위에 오는 다른 형태소의 영향에 의한 결합적 변화로 나뉜다.

8) 공시적 변화를 '변동'이라 하여, 통시적 변화와 용어상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다. … 이와 같이 언어지리상에서 또 문헌상에서 고찰한 결과의 방언 어형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層位學的인 고찰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그들 어형의 위치를 정립시키려 한다.[256면]

(현평효 1969)

제주도 방언은 단편적이나마 12·3세기의 고어로부터 16·7세기의 언어 그리고 오늘날 교통의 빈번으로 말미암아 개신파의 언어가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이렇게 하여 여러 시대의 언어가 한데 뒤섞여져서 실로 복잡한 혼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287면]

(현평효 1971b)

여러 시대의 어형이 혼재된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한 실제의 연구 작업에서 현평효는 '나무(木)'란 단어를 중심으로 비교방언론을 전개하였다. 전국적으로 이의 방언형은 '낭'계 어형('낭, 낭구, 낭기, 낭이, 낭키' 등)과 '남'계 어형('남, 남기, 남구' 등) 그리고 기타 어형('나모, 나무' 등)으로 나뉘는데 제주방언에는 '낭, 남, 나모, 나무' 등 네 어형이 동시에 출현하여 "복잡한 혼태"를 이룬다. 이에 대해 그는 "문헌상의 사실"을 고려하면서 다른 지역의 방언형들과 비교·검토해 보면 시대순으로 제1기의 어형이 '남'이며[9] 이 어형으로부터 '낭'(제2기), '나모'(제3기), '나무'(제4기) 등이 파생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9) 이와 같은 어형의 발달 단계 추정이 일본어 등과의 언어 대조에 근거하여 이보다 더 이전 단계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나물' 어사의 일본어 어음 [na](菜)는 원시 시대에 국어에서 분파되어 나간 어음이 아닌가 하며 이 '나물' 어사의 어음을 일본에서 [na]로 표현하여 국어의 '나무(木)'의 원시 어음과 동일한 어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무'와 '나물' 또는 일본어 [na]가 모두 同源語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본다.[276면](현평효 1969)

> 우리는 '남, 낭, 나모, 나무' 네 어형이 국어사상에서 볼 때는 각각 그 年紀를 달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286면] … 계림유사에 의하여 국어사는 우리에게 '남' 어형이 最高의 어형임을 가르쳐 준다. 이 최고 어형이라 함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헌 자료상에서의 이야기다.[287면] … 문헌상의 사실과 지리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남'이란 11세기의 어형이 유독 제주도에만 남아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남'의 露頭가 있는 제주도 방언 地層을 제1紀層이라 함 … 小倉進平 박사의《朝鮮語方言의 硏究》334면에 의하면 평북 후창에서는 '낭이'라 하면 주격까지 표현하는 일이 있다 하니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체언은 '낭'뿐이다. 이것은 제주도 방언의 '낭' 어형과 동일형이다. 언어지리학적으로 고찰할 때 남북 兩邊域에 동일한 어형이 잔재하여 있는 것이라겠다. 문화 중심지에서 새로 생기는 어형의 전파력에 파쇄당하고 말살당하다가 벽지인 후창과 제주도에 남아 있는 최고의 어형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 '낭' 어형의 지층은 제2기층이라 하게 된다.[288면] … '나모' 어형의 방언지층은 제3기층 … '나무' … 이 어형의 방언 지층은 제4기층이다.[289면]
>
> (현평효 1971b)

이와 같이 분화 이전의 형태('남')를 재구하고 이 형태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화되어 가는 과정 즉 "어형의 발달 과정"을 단계적으로 밝혀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제주방언에 공존하는 同義의 방언형들 사이의 상대적 순서를 정하기 위해 "층위학적 방법"을 활용했다 할 만하다.

> 층위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그 각각을 지리적 사실과 문헌적 사실을 대비시키면서 기층 별로 구분하여 고찰한다면 그 여러 어형의 발달 과정이나 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또 그 여러 어형들이 사실 변천하여 나가는 어느 단계에서 분파되었다거나 또는 어떤 역사적 변환기에 차용하여 들어왔다거나 한 사실들을 천명하여 낼 수 있겠고 또 그 어사의 역사를 엮어 놓는 일도 되리라 본다.[274면]
>
> (현평효 1969)

> 오늘날 제주도 방언의 상태는 그 음운 분야에 있어서는 후설 저모음인 'ᄋᆞ'음이 제2음절에서는 많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제1음절에서는 다른 단모음에 비하여 상당한 세력으로 아직 사용되고 있어서 국어 음운사상 17세기 전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4면]
>
> (현평효 1975)

나아가 제주방언의 모음 'ᄋᆞ'가 보여주는 "국어 음운사상"의 위치를 "17세기 전후"로 규정한 것도 "층위학"의 대상을 '단어'에서 '음운'의 차원으로 진전시킨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그는 '어휘, 음운, 문법' 전 영역에 걸쳐[10] 비교방언론을 점차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한국어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제주방언의 위치를 정립해 보려 한 셈이다.

(2) 계량화와 언어변이론

현평효의 제주방언 연구는 그 출발선상에 'ᄋᆞ'가 놓여 있었다. 그는《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1962)에 근거하여 'ᄋᆞ'의 사용 실태를 살피되 먼저 "추계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 7.24%~8.22% … 방언 전 어휘에서의 비율을 推計學的 분석 用具를 원용함으로써 확정하여 내었다. 이것으로써 'ᄋᆞ'음의 사용 실태를 計數上으로 나타낸 셈이다. 여기 'ᄋᆞ'음은 아직도 제주도 방언에서는 상당한 세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임을 거듭 말해 둔다.[316면]
>
> (현평효 1963)

10) 현평효(1975)의 결론 즉 "史的으로 근 천 년 간이나 年紀 차가 있는 정동사어미의 형태들이 오늘날 공시태로 사용된다는 것도 제주도 방언의 특유한 현상"[133면]이라 한 진술을 보면 그는 문법 차원에서도 동일한 연구 목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겠다.

통계적으로 보아 'ᄋᆞ'의 출현 빈도가 '에'("8.346%~9.714%")보다 낮지만 '애'("2.94%~3.42%")나 '으'("6.28%~7.01%")보다는 높아 "상당한" 활용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모음의 출현 위치에 따른 단어 수 비교 및 세대별 관찰을 통해서 'ᄋᆞ'에 관한 중요한 국어사적 사실이 "암시"된다 하였다.

> 제1음절에 'ᄋᆞ'음을 보유하고 있는 어휘는 … 1175어 … 제2음절에 'ᄋᆞ'음을 보유하고 있는 어휘는 … 209어[312면] … 제2음절 'ᄋᆞ'음어가 제1음절 'ᄋᆞ'음어에 비해 숫자상 절대적 차이가 있는 것은 朝鮮朝語의 'ᄋᆞ'음가 해명에 중대한 암시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 'ᄋᆞ'음은 제1단계로 제2음절에서 먼저 소멸되어지고 그 다음 적어도 수십 년 내지 1세기 이후에야 제1음절에서도 소멸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13면]
>
> (현평효 1963)

> 제주도 지역의 연소층의 언어에서는 후설모음 'ᄋᆞ'를 '오'음 혹은 '아'음에 융합시켜 나가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방언의 모음체계로서는 두 체계가 병존하고 있다고 하게 된다.[5면]
>
> (현평효 1975)

특히 제1음절에 'ᄋᆞ'를 가진 단어가 제2음절에 'ᄋᆞ'를 가진 단어를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주방언에서 발견되는 'ᄋᆞ'의 변이 양상 등으로부터 그는, 'ᄋᆞ'의 음운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구분	변화의 위치 및 순서	근거
제1단계 변화	제2음절 이하에서 "먼저" 일어남.	출현 위치에 따른 단어 수 비교
제2단계 변화	제1단계 변화 후 "수십 년 내지 1세기 이후"에 제1음절에서 일어남.	언어변이에 대한 세대별 관찰

일반적으로 말해 한 언어 또는 방언에 출현하는 언어변이는 곧 진행 중인 언어 변화인바 제주방언의 'ᄋᆞ'가 보여주는 언어변이의 다양한 모습('ᄋᆞ~아, ᄋᆞ~으, ᄋᆞ~어, ᄋᆞ~오')은 제주방언뿐 아니라 한국어 모음사 속에서 'ᄋᆞ'음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정승철 1995: 17~53). 우선 현평효(1966)에 관찰·기술된 'ᄋᆞ'의 변이 양상을, 약간의 보충 설명을 붙여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변이 양상	실례	대응 표준어	보충 설명
ᄋᆞ~아	골-~갈-	갈다(替)	매우 많음. 표준어의 영향
ᄋᆞ~어	모ᄌᆞ~모저	모자(帽子)	주로 제2음절 이하
ᄋᆞ~으	흑~흑	흙(土)	극히 드묾.
ᄋᆞ~오	ᄉᆞ나의~소나의	사나이(男)	연소층에서의 제한적 변화

문헌 자료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를 통해 'ᄋᆞ'음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해 온 기존의 거시적 연구와 달리, "산 자료"로서의 방언에 기초한 'ᄋᆞ'음 연구는 해당 흐름 속에서의 변화의 미세한 과정을 간취해 내는 미시적 연구를 가능케 한다.[11] 그러한 까닭에 'ᄋᆞ'의 변화에 관한 한 제주방언은 국어 음운사 연구의 필수 대상이 된다.

> 이미 소멸되어 버린 어음의 음가를 구명하는 데 있어서는 문헌상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산 자료를 제공해 주는 방언이 등장되어져야 한다 함은 오늘날 언어학에 있어서의 한 개 상식이다.[311면]
>
> (현평효 1963)

제주도 지역의 연소층의 언어에서는 후설모음 'ᄋᆞ'를 '오'음 혹은 '아'음에 융합, 소

11) 그러한 연구 결과의 하나로서 정승철(1995: 30-37)에서는 위 표와 같은 제주방언의 방언적 사실을 바탕으로 'ᄋᆞ'음 변화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① 'ᄋᆞ>으'의 변화 ② 어두음절의 'ᄋᆞ>아'변화와 비어두음절의 'ᄋᆞ>어'변화 ③ 'ᄋᆞ>오'의 변화.

> 멸시켜 나가고 있다. 사실 연소층의 언어에서는 '둑'(鷄)을 '독'으로, '물'(馬)을 '몰'로, '풋'(小豆)을 '폿'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표준어 교육의 영향은 이 방언 'ᄋᆞ'음을 '오'음으로만 변화시킬 것 같지는 않다. … 아무튼 오늘날 제주도 지역의 연소층의 언어에서는 'ᄋᆞ'는 급격히 소멸되어 버리는 단계에 있다.[378면]
> (현평효 1971a)

아울러 그는 제주방언의 "연소층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ᄋᆞ~오'나 'ᄋᆞ~아'의 변이를 'ᄋᆞ'음 "소멸"의 전조로 이해하였다. "표준어 교육의 영향"이든, 제주방언의 독자적 발달이든 'ᄋᆞ'가 차지하는 모음체계상의 지위가 불안정하여 소멸 직전에 여러 방향으로의 변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로써 현평효의 'ᄋᆞ' 관련 논문들에 나타나는 모음변이론과 계량화는 그 작업의 최종 목적이 방언 통시론에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구조주의

구조주의는 각각의 요소나 현상들을 전체 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 언어 사조의 하나다.[12] 현평효는 이와 같은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을 수용한바[13] 자연스레 그의 음운 관련 논문에서 '체계'를 중시하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한국 방언들 간에 체계적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자음은 연구 영역에서 대체로 벗어나 있으며 방언권별로 상당한 체계상의 차이를 노정하는 모음이 그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물론 그 관심의 대부분도 해당 모음이 경험한 체계상의 변화에 기울여졌다.

12) 구조주의에서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맺고 있는 (가깝고 먼) 관계를 '구조'라 하며 해당 구조들의 총합을 '체계'라 부른다.

13) 그의 업적에서 '대립(opposition), 기능부담량(functional Load), 방언체계(diasystem)' 등의 구조주의적 용어나 개념을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하나의 음운은 그 음운체계 안에서 다른 음운들과 구별되고 대립되는 데서 존재한다. 이 대립을 이루지 못하는 음운은 대립의 짝을 구하든지 아니면 소멸하여 버리든지 한다. 음운은 이와 같이 대립의 짝을 구하고 혹은 소멸하여 버리고 하는 데서 그 음운체계는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이다.[370면]
>
> (현평효 1971a)

> 제주도 방언의 단모음 음소로서는 전설모음에 '이, 에, 애' 셋이고, 중설모음에 '으, 어, 아' 셋이고, 후설모음에 '우, 오, ᄋᆞ' 셋이다.[369면]
>
> (현평효 1964b)

제주방언은 '이, 에, 애, 으, 어, 아, 우, 오, ᄋᆞ'의 9모음체계를 이루는데 그가 보기에 체계상으로 주목할 모음은 'ᄋᆞ'와 '에, 애'의 셋에 불과했다. 'ᄋᆞ'는 제주방언에만 존재하는 모음이고 '에'와 '애'는, 당시로선 '에/애' 대립의 소멸이 언급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례[14]이기 때문이었다.

> 제주도 방언의 'ᄋᆞ'음에 대하여 논함은 한갓 방언 모음론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ᄋᆞ'음가론에 있어서의 선행 작업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312면]
>
> (현평효 1963)
>
> 제주도 방언에서 '에'와 '애'음은 음운론적으로 서로 대립되어서 각각 별개의 음소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는 제주도 방언의 모음론상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327면]
>
> (현평효 1964a)

14) 여기에는 19세기 이전에 이미 '에/애'의 대립이 사라진 경상도 방언이 제외된다.

즉 'ᄋᆞ'가 다른 모음들과 대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에'와 '애'가 서로 대립하는 모음인지 여부가 제주방언의 모음체계 및 그것의 변화를 기술하는 데에 관건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는 일단 제주방언의 'ᄋᆞ'는 "발음상태"에서 '아' 또는 '오'와 "비슷"하지만 이들과 대립을 보이는 별개의 음소이고, '에'와 '애'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서 조음"되나 서로 변별되므로 별개의 음소로 "분립"된다 결론하였다.

> 'ᄋᆞ'의 발음상태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설명하고 'ᄋᆞ'를 '아'보다 아주 뒤쪽에서 그리고 약간 높은 듯한 위치에서 발음해지는 음이라고 결론했다. … 'ᄋᆞ'는 가장 '아'에 가깝고 비슷한 점이 있는 음이라고 하게 된다.[365면] … 오늘날 제주도 언어사회의 연소층에 있어서 'ᄋᆞ' 발음할 때의 입술의 상태 등을 보면 '오' 발음 시의 입술의 상태와 비슷한 점이 있다. 이것이 '아'와 '오'는 서로 성질이 비슷한 점이 있는 음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366면]
>
> (현평효 1964b)

> '에'와 '애'가 뚜렷이 방언의 음소 조직체계상 별개의 음소로 분립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음이 잘 구별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15] … '에'와 '애'가 서로 가까운 위치에서 조음되기 때문에 그 발음 결과의 음이 '에'로도 들리고 '애'로도 들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362면]
>
> (현평효 1964b)

15) 이에 대해 이숭녕의《국어학논고》(1960: 281)의 진술을 인용하였다; 단모음 '애'는 [ɛ]~[e]의 間音인 [E]로 의식되나 연소층에서는 오직 [e]로 발음함이 일반이어서 '애, 에' 간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352면](현평효 1964a) 사실 현평효에게 있어 음운론뿐 아니라 제주방언 연구 전반에 걸쳐 이숭녕(1908-1994)의 학문적 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숭녕의〈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1957)에 대한 다음 진술을 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개별 방언에 대한 논고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제주방언의 조어법에서부터 명사, 대명사, 수사 및 격어미(조사)와 용언의 활용어미 특히 동사의 어미 등 광범위하게 논했다.(<되돌아본 세월> 16)

이처럼 노년층 토박이 화자에게는 뚜렷이 변별되던 모음들이 특정한 이유로 대립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가 보기에 제주방언의 모음체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애'의 "고설화"(즉 '애>에'의 변화)였는데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모음 '애'가 지닌 음성적 불안정성이었다. 즉 '애'는 "빈출 도수나 기능부담량"이 낮지만 발음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로 인해 '애'의 변화가 촉발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그후 연쇄적으로 'ᄋᆞ'의 "고설화"(즉 'ᄋᆞ>오'의 변화)나 "중설화"(즉 'ᄋᆞ>아'의 변화)가 일어나 제주방언의 'ᄋᆞ'는 "급격히 소멸"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 오늘날 제주도 지역의 연소층의 언어에서는 'ᄋᆞ'는 급격히 소멸되어 버리는 단계에 있다.[378면] … 제주도 방언에서 '애'음은 그 빈출 도수나 기능부담량이 단모음 중 가장 낮다. 이와 같이 '애'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발음기관의 긴장, 노력의 증대를 요하게 되고 한편 또 이 '애'음은 빈출 도수나 기능부담량이 낮다는 이러한[380면] 요건들이 9모음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입게 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 '애'음이 고설화하여 나가는 過渡의 현상 … 후설모음 'ᄋᆞ'는 그 대립의 짝을 잃어 고설화('오'음화) 또는 중설화('아'음화)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라 하겠다.[381면]
>
> (현평효 1971a)

나아가 그는 '애>에'의 "고설화"에서 촉발된 "체계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후설모음 'ᄋᆞ'가 변화를 겪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전설의 '애'가 사라져 전설:중설:후설이 3:3:3(장년층)에서 2:3:3(연소층)으로 바뀌자 후설의 'ᄋᆞ'를 "소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2:3:2의 대칭적 체계를 지향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리라는 말이다. 이른바 모음 변화의 동인에 대한 설명이었다.

> 오늘날 제주도 방언의 전설모음은 그 체계가 이중으로 되어 가고 있다 하게 된다. 장년층 이상의 언어에서는 3모음 체계이고 연소층의 언어에서는 2모음 체계라 하

> 게 된다. … 연소층의 언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전설모음에서의 음운의 융합은 '구조상의 구멍'(hole in the pattern)을 초래하고 체계상 불균형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된다. 즉 전설모음이 2모음 체계인 데 대하여 후설모음은 3모음 체계로 '통합되지 않은 음소' 하나가 후설모음 체계에 더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구조상의 구멍'이 되어 있는 곳에 다른 음소를 끌어당겨서 메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통합되지 않은 음소'를 소멸시킴으로써 체계적 균형을 취하든지 하게 된다.[378면]
>
> (현평효 1971a)

결국 그의 음운론 연구에서는 구조주의의 여러 개념들 특히 "체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변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주방언의 모음 변화의 방향과 그 원인을 규명하려 했다 할 만하다.

4. 맺음말: 비판을 넘어

현평효는 제주방언의 역사에 주된 관심을 가진 제주 출신 국어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음운론으로 한정하여 말하면 그는 타 방언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방언의 이전 모습을 재구하고 그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제주도의 "33지점", "163명의 제보자"(정승철 2010: 218)를 조사하여 방대한 방언자료집(《제주도방언연구》)을 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방언의 언어변이 및 모음 변화의 양상을 관찰·기술하였다. 당시까지의 제주방언 연구는 개괄적이거나 특정 주제에 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현평효는 제주방언의 음운체계뿐만 아니라 문법·어휘체계의 전모를 드러내는 업적을 주로 산출함으로써 제주방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은 오늘날 여러 방면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음운론에 관한 한 그 비판 대상 중의 하나는 제주방언 문법형태소의 형태 확정

작업 이른바 '형태소의 음운 분석'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일찍이 여러 제주방언 연구자들이 지적한 대로 현평효(1975) 등에서 한 형태소의 이형태인데 별개의 형태소로 보았다든지[16], 서로 다른 형태소인데 동일 형태소의 이형태로 보았다든지[17], 또 두 형태소의 결합인데 하나의 형태소로 보았다든지[18] 하는 잘못이 종종 발견되는 것이다.[19]

그런데 국어학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소 분석 작업은 1970년대 후반에 '생성음운론'을 수용하면서 음운론(이를 '형태음소론'이라 함.)의 제1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0·90년대에는 각 방언마다 기저형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아 표면형이 도출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술하여 형태소의 형식(=기저형)을 확정하는 작업이 전국의 방언 음운론 영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작업 절차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제주방언의 예 하나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저형: 가-으크-우다

중간단계: → 가-크(어미초 '으'탈락[20])-우다 → 가-ㅋ(어말 '으'탈락[21])-우다 →

표면형: 가쿠다(가겠습니다)

---

16) 홍종림(1976)에서는, 현평효(1975)에서 상정한 "미완료상"의 '-암/엄-'과 "미완료존속상"의 '-암시/엄시-'를 양자의 상보적 분포에 근거하여 동일 형태소의 이형태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는 무시걸 먹엄디?'(넌 뭘 먹니?)의 '-엄-'과 '자인 무시걸 먹엄시니?'(쟨 뭘 먹니?)의 '-엄시-'가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는 동일하다.

17) 김지홍(1992)에서는, 현평효(1975)에서 이형태로 본 "추측법"의 '-리-'와 '-ㅋ-'을 그 분포(동일 위치에 출현함.)에 근거하여 별개의 형태소로 보았다. 그러므로 '가다그네 털어지려!'(가다가 떨어질라!)의 '-(으)리-'와 '가다그네 털어지켜!'(가다가 떨어지겠어!)의 '-(으)크-'가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18) 고영진(1991)에서는 현평효(1975)에서 상정한 "회상법"의 '-안/언/연-'을 '-아/어/여-'와 'ㄴ'(이는 후행하는 종결어미에 속함.)으로 나누었다. '그 ᄒᆞᆨ생 글 잘 익언게.'(그 학생 글을 잘 읽던데.)의 '익언게'를 '익(읽)-어(더)-ㄴ게(ㄴ데)'로 분석하였다는 말이다.

19) 정승철(1997)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수정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평효(1975) 등에 보이는 형태소 분석 오류는 일정 부분, 형태음소론의 도입 초기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토박이 연구자로서 가지는 한계(토박이 화자는 자신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 오류도 보인다. 다음은 현평효의《제주도방언연구》(1962)에 등재된 예들이다.

흰-자위: 힌-알 hin-al
술-안주: 술-안주 sul-anžu

이들은 전통 제주방언에서 이른바 "복사 현상"(정승철 1991)을 겪어 '힌날, 술란주'로 발음된다. 그럼에도《제주도방언연구》(1962)에서는 이러한 복사 현상을 간파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는 해당 어사들과 관련하여 선행어의 종성이 후행어의 초성으로 이동하지 않는다고만 여기는 토박이 제주방언 화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에 틀림없다.[22]

이처럼 현평효의 업적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될지라도 그의 업적들은, 이후에 출현한 제주방언 연구에 대해 기초 자료 제공이라는 뚜렷한 의의를 갖는다. 오류 극복의 대상이었거나 새로운 현상 발견의 단서 제공자였거나 어떤 형태로든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제주방언 연구의 초창기.

---

20) '먹으멍, 가멍, 살멍'(먹으면서, 가면서, 살면서)에서 보듯, '으'로 시작하는 어미(ex. -으멍)는 모음 또는 'ㄹ'로 끝나는 말(ex. 가-, 살-) 뒤에서 어미초 '으'탈락을 겪는다.

21) '크곡, 크난, 컹'(크고, 크니까, 커서)에서 보듯, '으'로 끝나는 말(ex. 크-)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ex. -엉) 앞에서 어말 '으'탈락을 겪는다.

22)《제주도방언연구》(1962)의 'sok-ot'(속옷)과 'nabuzag-i'(나부죽이) 그리고 'sul-anžu'(술안주)와 'ciur-ida'(기울이다)를 비교해 보면 k:g 및 l:r의 대응 표기로부터 부분적이지만 이 자료집 속에 복사 현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정승철 1991). 이때의 'k'와 'l'은 이 소리가 선행어의 종성임을 명시한 표기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62

아마도 그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출현하여 자신이 쌓아 놓은 연구의 토대를 딛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제주방언 연구 업적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람, 그것이 '매우 부지런한' 토박이 제주방언 연구자 현평효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강영봉(2019), 연암 현평효의 삶과 학문, 《방언학》 29.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 출판부.

고영진(1991), 제주도 방언의 회상법의 형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회상법의 형태소 정립을 위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곽충구(2005), 비교방언론, 《방언학》 1.

김지홍(1992), -겠-에 대응하는 -(으)크-에 대하여: 특히 분석 오류의 시정과 분포 확립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석사논문(서울대).

정승철(1991), 음소연쇄와 비음운론적 경계: 제주도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정승철(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 인용어미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20.

정승철(2010), 〈제주도 언어 자료〉 주해, 《한국어연구》 7.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정승철(2014), 한국 방언자료집 편찬의 역사, 《방언학》 20.

정승철(2014),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 'ᄋᆞ' 관련 업적을 중심으로,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고동호·정승철·송상조·고영진·김지홍·오창명·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정승철(2018), 석주명의 방언 연구 - 《제주도방언》(1947)을 중심으로, 《애산학보》 45.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정연사.[재판, 태학사, 1985]

현평효(1963), 제주도 방언 'ㆍ'음 소고, 《무애 양주동박사 화탄기념논문집》, 탐구당.[현평효(1985)에 재수록]

현평효(1964a), 제주도 방언 'ㅐ[ɛ]'음에 대하여, 《국문학보》 2, 제주대 국문학과.[현평효(1985)에 재수록]

현평효(1964b), 제주도 방언의 단모음 설정, 《한국언어문학》 2.[현평효(1985)에 재수록]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63

현평효(1966), 제주도 방언 형태소의 이형태에 대하여 - 수의적 변이의 이형태, 《가람이병기선생 송수기념논문집》, 삼화출판사.[현평효(1985)에 재수록]

현평효(1969), 제주도 방언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어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문집》(동국대) 7·8.[현평효(1985)에 재수록]

현평효(1971a), 제주도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현평효(1985)에 재수록]

현평효(1971b), 제주도 방언 어사의 층위학적 고찰, 《장암 지헌영선생 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현평효(1985)에 재수록]

현평효(197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어미 연구, 박사논문(동국대).[현평효(1985)에 재수록]

현평효(1977), 제주도 방언의 존대법, 《국어국문학》 74.[현평효(1985)에 재수록]

현평효(1982), 제주도 방언 개관, 《제주도지》, 제주도.[현평효(1985)에 재수록]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현평효(1993), 되돌아 본 세월, 《한라일보》 1993.3.6.-8.14.(토·수요일, 45회 연재)

현평효·김홍식·강근보(1974), 제주도 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논문집》 6, 제주대.

홍종림(1976), 제주도방언의 선어말어미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 《김형규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64

제주방언 연구의 큰 산, 연암 현평효 교수를 기억하다

강정희(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들어가는 말

제주에는 육지에 있는 그 많은 크고 작은 산들이 없다. 산이라고 해야 큰 오름에 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오름들이 몇 개 있을 뿐이다. 제주에서 큰 산은 오로지 한라산 하나뿐이다. 제주의 가장 큰 산 한라산은 오백 장군을 열두 폭 넓은 치맛자락으로 품고 앉아 있는 설문대할망을 닮은 산이다.

큰 산 속에는 산의 기운을 받아 다양하고 무성한 숲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큰 산에는 좋은 나무가 많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만 숲속의 모든 나무가 다 튼튼하고 좋은 나무가 될 수는 없다. 좋은 나무는 땅 속 깊은 곳으로 굳게 뻗어나간 뿌리가 끊임없이 줄기를 통해서 나뭇가지에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했을 때, 무성한 나뭇잎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듯 튼튼한 뿌리(根)에 튼튼한 줄기(幹)를 가진 나무를 우리는 좋은 나무라고 한다. 좋은 산에 좋은 나무. 숲 생태계에서 나무의 경쟁력은 줄기와 뿌리에 좌우된다. 즉 좋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根幹'이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뜻이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65

요즈음 제주방언 연구 분야와 연구자들의 수와 업적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확장되어 풍성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주방언 연구 생태계의 풍성함이야말로 바로 연암 현평효 교수라는 제주방언 연구의 가장 큰 산의 토양에서 자란 뿌리와 줄기가 튼실한 나무들의 군락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현평효 교수님과 필자의 인연은 1976년 필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렸는데, '잘 받았다'는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신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2년 후인 1978년 6월말에 현재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에서 처음으로 교수님을 뵈었다. 첫 인상은 그 세대에 비해서 키가 큰 편이셨고, 적당한 체격에 얼굴은 살이 좀 없는, 모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강직?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교수님은 그날 처음 만난 조교 신분인 필자에게 식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육지에서 공부한 사람이 제주방언을 연구하게 되었냐하면서 무척 반가워해주셨다. 그리고는 제주방언 연구자가 없으니 앞으로 제주방언 연구를 계속하라고 격려해주셨다. 이렇게 만나게 된 교수님과는 그 후 교수님께서 학교 최고 행정 책임자가 되시기 전까지 매년 12월에 2박 3일로 열리는 '국어학회'에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다.

말씀이 별로 없으셨던 교수님은 학회에 오실 때마다 휴식 시간이 되면 필자에게 마치 제자를 대하듯이 제주방언 연구 방향이나, 주제, 등에 대해서 강의하시듯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해주시곤 하셨다. 필자가 제주방언의 격조사에 대하여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정하게 된 동기도 학회 때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였을 것이다.

1980년 경 캠퍼스가 한라산 기슭 아라동으로 옮긴 후 연구실로 뵈러 몇 차례 찾아뵈었으나 이 시기부터 교수님께서 학교의 행정 책임자가 계속 되시고 이어서 정년퇴임하실 때까지는 필자의 게으른 탓으로 찾아뵙지를 못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1985년 여름 퇴임하시면서 출간하신 당신의 생애 최고 업적인《濟州島方言硏究 -資料篇》과《濟州島方言硏究 -論考篇》두 책의 속 페이지에 손수 붓으로 '康貞姬 敎授 惠存, 玄平孝 드림'이라고 쓰신 책을 필자의 연구실로

소포로 보내주셨다. 그때의 감격과 죄송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후 제주방언 문법을 연구하는 필자에게 이 두 책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책으로서 필자의 소장 도서목록 제 1,2호로 지금까지 필자의 서가를 지키고 있다.

교수님께서는 퇴임하시고도 제주방언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셔서 1991년에 '제주방언 연구회'를 조직하시고 5년 여 동안 회장으로 봉사하셨다. 이 기간 동안 필자에게 부회장으로 봉사하라고 하셔서 회의할 때마다 제주에 가서 교수님을 뵈었으나 〈방언 연구회〉의 답사 활동 등에는 일정을 핑계 삼아 함께 해드리지 못 했었다.

이러한 일이 교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아쉽고 죄송스럽다.

필자는 제주방언 연구의 개척자이자 선구자로서 홀로 고민하시며 탐구하셨던 교수님의 학문적인 업적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교수님께서 예전에 보내주신, 이제는 빛바래고 헐어서 낡아진《濟州島方言硏究 -論考篇》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기로 한다.

2. 제주방언 문법 연구의 큰 산을 다시 찾다

2.1.《濟州島方言硏究 -論考篇》의 구성

《濟州島方言硏究 -論考篇》에는 현평효 교수가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1960년 대 초부터 79년까지 약 20년 동안에 걸쳐서 쓰신 제주방언의 형태론 6편, 어휘론 3편, 음운론 4편, 그 외 제주방언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과 방언 연구에 대한 검토를 각각 1편씩 모두 15편이 실려 있다. 이들 업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形態論的 硏究

1. 濟州島 方言의 定動詞語尾 硏究

2. 濟州島 方言의 尊待法

3. 제주도 방언의 명령법 어미

4. 濟州島 方言의 '-저 · -주' 語尾에 대하여

5. 고려가요에 나타난 /-고시-/ 形態에 대하여

6. 濟州島 方言 形態素의 異形態에 대하여

Ⅱ. 語彙史的 硏究

7. 濟州島 方言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語詞에 대하여

8. 濟州島 方言 語詞의 層位學的 考察

9. 耽羅 言語의 原流

Ⅲ. 母音에 대한 硏究

10. 濟州島 方言 'ㅅ'音 小考

11. 濟州島 方言 'ㅐ'[ɛ]音에 대하여

12. 濟州島 方言의 單母音 設定

13. 濟州島 方言의 音韻

Ⅳ. 方言 槪觀 및 硏究에 대한 考察

14. 濟州島 方言 槪觀

15. 濟州島 方言 硏究에 대한 檢討

附錄

Ⅰ. 格語尾 및 活用語尾

Ⅱ. 論著目錄

앞에 보인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제주방언 연구의 개척기의 연구 분야가 거의 모두 연암 현평효 교수의 과제였을 만큼 연구 분야의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요즈음의 젊은 연구자들이 감히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연암 현평효 교수의 제주 방언 연구 업적으로 우리는 제주방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절의 교수님의 제주 방언 연구에 대한 열

정과 혜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2.2. 연암의 제주방언 문법 연구의 내용

《濟州島方言硏究 -論考篇》은 제주방언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제주방언에 대한 국어학의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들조차 고도의 집중력을 쏟아서 읽어야 할 만큼 각각의 논문의 내용은 독자들의 인내와 끈기를 요한다. 즉, 연암 현평효 교수의 각 논문에 제시된 방언 자료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방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아울러 국어학의 이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濟州島方言硏究 -論考篇》의 문법 분야 - **Ⅰ. 形態論的 硏究** 장에 모아 놓은 연암 현평효 교수의 연구들 가운데 지금까지 제주방언 문법 연구의 뿌리와 줄기-根幹-이 된 〈濟州島 方言의 定動詞語尾 硏究〉(1974)의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정리하여 소개하기[1]로 한다.

1. 濟州島 方言의 定動詞語尾 硏究(1974)

이 연구는 연암 현평효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이 연구는 논문 제목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정동사'[2]라는 문법 용어와 표준어에서는 시제(tense) 또는 시상(aspect)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주방언의 독특한 표현 즉, 동작주의 어떤 동작 또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이나 양상'에 대하여 유럽과 알

1) 이 글은 연암 현평효 교수님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이므로 논문 내용 중 형태소 분석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여러 후학들의 이에 대한 검토는《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2014))의 김지홍 교수와 고영진 교수의 글에 소개되어 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은 이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2) '정동사 어미'라는 이 용어는 알타이어학자 G. J. Ramstedt(1952)에서 취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11쪽) 제주방언의 "定動詞語尾란 敍法, 尊待法, 動作相 등으로 表現되면서 文章을 終決짓는 機能을 다하는 語尾이다."(11쪽)

타이 문법에서 사용하는 '동작상(Aktionsart)'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모두 6장 -**1.서론, 2.동작상, 3.존대법, 4.서법(1), 5.서법(2), 6.결론**-으로 이루어져있다.

2장 動作相은 이 연구의 중심이 되는 장이다. 이 장에서는 제주방언의 동작상의 종류를 4개 - 미완료상, 완료상, 미완료존속상, 완료존속상 -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에 앞의 연구에서 제시된 예들을 통해서 네 가지의 동작상을 표현하는 형태소들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동작상 중 미완료상에 대하여 연암 현평효 교수는 "〈미완료상〉(계속상)이란 어떤 행동. 동작이 계속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27쪽)라고 정의하면서 (13)~(41)의 **미완료상 동작상어미 /-암~~-엄-/과 /-람-/을** 의 형태소를 분석해내었다.

(13) 애긴 울엄저.
(28) 는 밥 먹엄다?
(32) 가의도 ᄒᆞ교에 뎅겸고?
(33) 느네 성 언제 서월서 오람시니?
(40) 철순 아적의 ᄒᆞ교에 감서라.
(41) 가의 그디서 밥 먹엄십데다.

그 다음, 이 미완료상에 대립되는 동작상으로서 다음의 (42)~(72)의 예에서 **완료상의 동작상어미 /-앗~~엇-/과 /-랏-/, /-안~~언-/과 /-란-/**을 분석하고 있다.

(42) 철순 일ᄒᆞ엿저.
(46) 아긴 젓 하영 먹엇저.
(57) 는 이제사 오랏고나!
(60) 는 그 책 다 익언다?

(65) 철수도 ᄒᆞ교에 간가?

(69) 철수 어디 갓고?[3)]

(72) 느도 방의서 공부ᄒᆞ엿고?

미완료존속상의 동작상어미로는 (73)~(118)의 발화에서 **/-암시~~-엄시-/과 /-람시-/, /-암ㅅ~~-엄ㅅ-/과 /-람ㅅ-/** 를 분석하였다.

(73) 자의 그 일로 ᄌᆞ들암시녜.

(74) 가의 아직 잠시키여.

(76) 는 참 잘 먹엄신게.

(81) 난 밥 먹엄시쿠다.

(82) 자의 어디 감시니?

(114) 비 오람시냐?

마지막으로 **완료존속상의 동작상어미**는 (119)~(138)의 발화에서 앞의 완료존속상과 대립되는 **/-아시~~-어시-/과 /-람시-/, /-앗ㅅ~~-엇ㅅ-/과 /-라ㅅ-/**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동작상어미의 기능과 관련하여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동작주의 동작표현에 관여하는 동작상어미들이 형용사와 상태동사에도 결합되어 이들을 동작화로 표현하는 제주방언의 또 다른 특이한 점[4)]을 지적하고 있다.

미완료상	완료상
들엄저 들엄다 들엄디	들엇저 들언다 들언디

3) 예 (69), (72)와 같은 예들은 요즈음의 제주방언 고령층 화자들에게서도 잘 채록되지 않는 어색한 예들이다. 연암 현평효 교수도 "이와 같은 발화들은 의문법 어미 '-안다' 형에 밀려서인지 특별한 장면에서가 아니면 잘 언술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32쪽)

4) 이 연구에서 간단히 지적하고 지나간 이 현상에 대하여 필자(1882)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가 있다.

닮암저 닮암다 닮암디	닮앗저 닮안다 닮안디
붉암저	붉앗저
듯암저	듯앗저
퍼렁헴저	퍼렁헷저

3장 尊待法은 제주방언의 존대법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제주방언 대화자 간의 발화상에 있어서 나이, 신분의 상하관계에 따라서 발화자의 발화에 반영되는 (상)대자존대 표현에 관여하는 형태소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발화자의 언어 표현을 포괄해서〈존대법〉이라하고 대자존대 등급을 'ᄒᆞ라 체', 'ᄒᆞ여 체', '홉서 체'의 3등급으로 설정하였다.

제주 제주방언 선어말어미에서 실현되는 제주방언의 대자존대어미로 {-우-}, {-ㅂ-}, {-마씀}의 3개 형태소를 들고 있다.

(1) 난 집의 감수다.
(17) 성님 뭐 먹쿠가?
(28) 어두운디 어디 감이우과?
(34) 혼저 제게 집의 갑서.
(35) 철순 일 잘 홉네다.
(36) 이 애기 말 잘 골읍네다.
(40) 나가 그거 헤서마씀

대자존대어미 {-우-}, {-ㅂ-}, -마씀의 국어사적 위치는 {-우-}가 가장 오래된 고대 시기형으로, {-ㅂ-}은 "元來는〈客體尊待〉를 표시하는 形態素로 쓰여 오다가 어느 時期에 이르러〈對者尊待〉形態素로 쓰이게 된 것"(74쪽)으로 보고 있다. -마씀의 등장에 대해서는 "活用語尾가 존대법 체계에서〈ᄒᆞ라 體〉(下待),〈ᄒᆞ여 體〉(平對)는 있는데〈홉서체〉(尊待)는 없어서...〈構造上의 구멍〉(hole in the pattern)을

메우기 위해서 形成되어 나온 語尾가 바로 〈ᄒᆞ여체〉어미에 {-마씀}을 添加시킨 것"(74쪽)이거나, "近代語 現代語로 내려 오면서 尊待法은 客體尊待, 主體尊待보다 場面에 應하는 對者尊待法을 훨씬 자주 쓰게 되어서 -{마씀}添辭를 원용하여서 〈對者尊待〉形態素로 援用 한 것이 아닌가 한다."(72쪽)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4장 敍法(1)은 선어말어미로 표현되는 서법에 관한 고찰이다.

이 장에서는 선어말어미로 표현되는 서법인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에 관여하는 형태소들과 이들의 이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 제시하였다.

1. 직설법 : /-ㄴ-ᄋᆞ-느-ᄋᆞ-니-ᄋᆞ-는-/

(1) 이 애긴 발 걷나.

(5) 가의 저녁의 온다.

(17) 애긴 방의서 놀암네.

(19) 철순 공부 잘 흡네까?

(21) 이 말은 잘 들읍네다.

(23) 이 강셍인 아무거나 잘 먹느니.

(24) 이 애기 말 잘 걷느냐?

(27) 간밤의 비 하영 오라시네.

(28) 그 사름 오늘 오는가?

2. 회상법 : /-더-ᄋᆞ-ㄷ-(-데-ᄋᆞ-디-)ᄋᆞ(-아~-어-)ᄋᆞ(-안~-언-)ᄋᆞ-라-/

(33) 간 보난 일 다 ᄒᆞ엿더라.

(36) 철순 일찍 나가데.

(40) 아긴 밥 잘 먹읍데가?

(44) 그 사름도 하여 먹어냐?

(45) 그 사름 밥 하영 먹언가?

(50) 그 ᄒᆞᆨ셍 공부 잘 ᄒᆞ크라고나.

3. 추측법 : /-ㅋ-ㅇ-리-ㅇ-ㄹ-/

(54) 그건 나도 하키어.

(63) 낭에 올랏당 털어지려.

(66) 오늘밤 비 올걸.

4. 의도법 : /-ㅋ-ㅇ-리-ㅇ-ㄹ-/

(70) 난 공부 ᄒᆞ염시크메.

(72) 이레 도라. 내 ᄒᆞ저./ᄒᆞᆸ주

(77) 느도 집의 갈다(댜)?/갈라?

5장 敍法(2)은 어말어미로 표현되는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의 형태소 분석과 설명으로 이루어져있다.

1. 평서법 어미

〈목 록〉(112쪽)

尊待等分 動作相	ᄒᆞ라體	ᄒᆞ여體	ᄒᆞᆸ서體
未完了相	-암저/-엄저 -암다/-엄다	-암주/-엄주 -암고/-엄고	-암주마씀/-엄주마씀 ○
完了相	-앗저/-엇저 -앗다/-엇다	-앗주/-엇주 -앗다/-엇다	-앗주마씀/-엇주마씀 ○
未完了存續相	○	-암서/-엄서	-암수다/-엄수다
完了存續相	○	-아서/-어서	-아수다/-어수다 -앗수다/-엇수다

〈평서법 어미의 형태〉(114쪽)

形態區分 尊待等分	變 異形態	基本形態
ᄒᆞ라體	/(-다~-아)ᄋᆞ-니)ᄋᆞ-에ᄋᆞ-리ᄋᆞ-여ᄋᆞ-어ᄋᆞ-저/	{-다}
ᄒᆞ여體	/-에ᄋᆞ-메ᄋᆞ(-아~-어)ᄋᆞ-게ᄋᆞ-고ᄋᆞ-고ᄋᆞ-걸ᄋᆞ-우ᄋᆞ-주/	{-어}
ᄒᆞᆸ서體	/-다ᄋᆞ-게ᄋᆞ-우	{-다}

2. 의문법 어미

〈목 록〉(119~120쪽)

尊待等分 動作相	ᄒᆞ라體	ᄒᆞ여體	ᄒᆞᆸ서體
未完了相	-암다 /-엄다 -암다/-엄다 -암댜/-엄댜 -암나/-엄나 -암니/-엄니 -암냐/-엄냐	-암고/-엄고	-암고마씀/-엄고마씀
完了相	-안다/-언다 -안디/-언디 -안댜/-언댜 -앗나/-엇나 -앗니/-엇니 -앗냐/-엇냐	-안/-언 -앗고/-엇고 -안고/-언고 -안가/-언가	-ㅂ데가 -ㅂ디가 -앗고마씀/-엇고마씀 -안고마씀/-언고마씀 -안가마씀/-언가마씀
未完了存續相	-암시냐/-엄시냐 -암시니/-엄시니 -암시아/-엄시아	-암신가/-엄신가 -암신고/-엄신고 -암서/-엄서	-암신고/-엄신고 -암수가마씀/-엄수가마씀
完了存續相	-아시냐/-어시냐 -아시니/-어시니 -아시아/-어시아	-아신가/-어신가 -아신고/-어신고 -아서/-어서	-앗수가/-엇수가 -아신고마씀/-어신고 마씀 -아수가/-어수가

〈의문법 어미의 형태〉(123쪽)

形態區分 尊待等分	變 異形態	基本形態
ᄒᆞ라體	/-냐ᄋᆞ-니ᄋᆞ-아ᄋᆞ-이ᄋᆞ-다ᄋᆞ-디ᄋᆞ-티ᄋᆞ-댜ᄋᆞ-탸ᄋᆞ-나ᄋᆞ-라ᄋᆞ-리ᄋᆞ-레/	{-냐}
ᄒᆞ여體	/-가ᄋᆞ-고ᄋᆞ-아ᄋᆞ-어ᄋᆞ(-안~-언)ᄋᆞ-까ᄋᆞ-라ᄋᆞ-오ᄋᆞ-엔/	{-가}
ᄒᆞᆸ서體	/-다ᄋᆞ-게ᄋᆞ-우	{-가}

2. 명령법 어미

〈목 록〉(123쪽)

尊待等分 動作相	ᄒᆞ라體	ᄒᆞ여體	ᄒᆞᆸ서體
未完了存續相	-(으)라 -암시라/-엄시라	-아/-어 · -게·-자·-쥐 ·-심 -암서/-엄서	-(으)ㅂ서 -암십서/-엄십서
完了存續相	-아시라/-어시라	-아서/-어서	-아십서/-어십서

〈명령법 어미의 형태〉(125쪽)

形態區分 尊待等分	變 異形態	基本形態
ᄒᆞ라體	/-라/	{-라}
ᄒᆞ여體	/(-아~-어)ᄋᆞ-게ᄋᆞ-자ᄋᆞ-쥐ᄋᆞ-심/	{-어}
ᄒᆞᆸ서體	/-ㅂ서/	{-ㅂ서}

이상으로 연암 현평효 교수의 제주방언의 정동사어미에 대한 연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현평효(1974) 이후 저자는 이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2. 濟州島 方言의 尊待法(1977a)

이 연구는 현평효(1974)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현평효(1974)에서 제주

방언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했던 '객체존대법'에 대하여 겸양어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주방언에서 객체존대법을 표시하는 겸양어로서 '안네다, 드리다, 술우다, 여쭈다, 올리다'를 제시하고 있다.

3. 제주도 방언의 명령법 어미(1977b)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의 명령법 어미는〈하대명령법〉,〈평대명령법〉,〈존대명령법〉[5]의 3항적 대립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존대명령법〉을 표시하는 '-ㅂ서'에 주체존대 어미 /-시-/가 결합된 '-십서'는 표준어의 영향을 받은 어미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4. 濟州島 方言의 '-저 · -주' 語尾에 대하여(1977c)[6]

이 연구는 어말어미 '-저'는 평서법, 의도법, '-주'는 평서법, 청유법, 허락법, 의도법, 추측법 등에 쓰이며, 이 경우 '-저'는 각 서법의 존대법 등급 가운데 '하대'로, '-주'는 '평대'로 쓰이고 있음을 설명한 연구이다.

아울러 청소년 층에서 평서법의 '-저' 대신에 '-다'가 많이 쓰이는 현상과 의도법에서도 '-저'보다 /-ㅋ-/ 또는 /-ㄹ-/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층에서는 표준어인 /-겠-/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은 '-저'의 소실을 앞당길 것이다. 청유법에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이미 /-자/가, 의문법, 허락법에는 '-지'가 쓰이게 될

---

5) 〈존대명령법〉의 정의를 "청자가 화자보다 연령, 사회적 지위가 위인 경우,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할 것을 **청원 명령할 적**"(195쪽)이라고 하고 있다.

6) **"濟州島 方言의 '-저·-주' 語尾에 대하여"**의 발표 연대에 대해서 본《濟州道方言硏究 -論考編》(1985)와 강영봉(2019)의 참고목록에 모두 1979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평효 교수가 1979년 1월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된《方言》1집에 발표한 "濟州方言硏究에 대한 檢討(1)"의 자신의 참고문헌 목록에 위 논문이 제시된 사실과 현평효(1985)에 실린 본 논문의 마지막 쪽 출처에도 1977년으로 나와 있음을 보아 이 논문의 발표 연대는 1977년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것이며, 의도법어미 /-ㅋ-/, /-ㄹ-/도 /-겠-/에 밀려 소실되어 갈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제주방언의 어말어미 '-저'와 '-주'로 표시되는 서법 체계도 붕괴되고 새로운 체계로의 추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고려가요에 나타난 /-고시-/ 形態에 대하여(1975)

이 연구는 고려가요에 자주 나타나는 'ᄒᆞ고시라'의 /-고시-/와 제주방언의 /-암시-/가 동일한 문법적 기능, 〈미완료존속상〉으로, 중세어의 /-아잇-/과 제주방언의 /-아시-/가 〈완료존속상〉으로 대응됨을 밝히고 있다.

6. 濟州島 方言 形態素의 異形態에 대하여(1966)

이 연구는 앞에 제시한 연구들보다 발표 연대가 앞선 연구지만 그 배열 순서를 맨 뒤로 한 것은 주제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연구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형태소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제주방언의 형태소들의 이형태들을 '모교체, 첨가, 탈락'으로 인한 이형태로 분석하였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의 발생은 음운론적 조건이나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이형태, 즉 모음교체, 자음교체와 자음첨가('ㄹ, ㅇ, ㄴ') 탈락('ㅅ, ㅎ')에 의한 이형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그 예들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1. 모음교체에 의한 이형태

   /ᄀᆞᆯ다~갈다/, /ᄯᅳ리다~떼리다/, /농사~농시/, /모ᄌᆞ~모저/, /조카~조캐/

2. 자음교체에 의한 이형태

   /ᄂᆞ잡다~ᄂᆞ찹다/, /문데다~문테다/, /시기다~시키다/, /눅다~눕다/

3. 첨가에 의한 이형태

   1) 'ㄹ' 첨가

      /노레~놀레/, /억지로~억질로/, /가르다~갈르다/, /부르다~불르다/

   2) 'ㅇ, ㄴ' 첨가

/바다~바당/, /따~땅/, /모양~모냥/, /ᄂᆞ누다~ᄂᆞᆫ누다/

4. 탈락에 의한 이형태

1) 'ㅅ' 탈락

/ᄆᆞ슬~ᄆᆞ을/, /ᄀᆞ슬~ᄀᆞ을/, /ᄀᆞ슴~ᄀᆞ음/

2) 'ㅎ' 탈락

/골히~고리/, /올히~올리/, /ᄎᆞᆯ하리~ᄎᆞ라리/, /일흠~일음/, /불히~불리/

이 연구는 앞의 교체형 중 'ㅅ'과 'ㅎ' 탈락에 의한 이형태는 이 시기의 제주방언이 표준어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3. 맺는 말

이상에서 연암 현평효 교수의 제주방언 문법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어떤 분야도 그러하듯이 초창기 선구자의 연구는 완벽할 수가 없다. 학문의 계승, 발전은 바로 선대 연구자들의 남긴 문제점을 후대의 연구자들이 발견하고 수정, 보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주방언 연구도 동일하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제주방언 연구의 초석이자 밑거름이 된 연암 현평효 교수의 연구 업적에 의지하여 발전해온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제주방언에 대한 제주도와 도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시기보다 매우 높다. 그런데 그 관심은 방언채록과 보전정책수립 등의 소멸위기의 제주방언을 보전하기 위한 '실천' 방향에 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실천적인 작업 등은 소멸위기의 제주방언을 보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에 급속하게 변화하고 소멸해가는 현재의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 업적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건강한 숲은 다양한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균형을 이룰 때에라야 형성된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79

다. 앞으로의 제주방언 연구도 연암 현평효 교수가 심어놓은 나무의 근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주방언 연구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나무를 중심으로 건강한 '제주방언 연구의 숲'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봉(2019), "연암 현평효의 삶과 학문", 《방언학》 29, 한국방언학회.
제주발전연구원(2014),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玄平孝(1985), 《濟州島方言研究 -論考篇》, 二友出版社.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80

연암 선생의 제주도 방언 어휘 연구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올해는 연암 현평효 선생(1920. 8. 16.~2003. 12. 11.(음))이 탄생 100돌을 맞는 뜻 깊은 해다. 탄생 100돌을 앞둬 제주도 방언을 연구하는 후학으로서, 선생이 걸어온 제주도 방언 연구의 궤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행운이다. 선생의 학문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자칫 잘못을 저지를까 걱정이다.

내가 선생을 직접적으로 뵀던 일은 대학 2학년 때가 처음이다. 대학 총장이었던 선생이 정년을 앞두고 제자들이 사은회를 여는 장소에서, 지도 선생님의 부탁으로 친구와 함께 사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연암의 저서인《제주도 방언연구》(논고편)를 나누어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였었다. 그때 수고했다고《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을 선물로 받았는데, 선생의 사인이 들어 있는 책을 소장할 수 있었던 일은 내게 두고두고 뿌듯하고 기분 좋은 추억이다.

그 이후에 선생님을 직접 만난 일은 문화부 기자로 현장 취재를 한창 할 때인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81

1990년이다. 선생께서는 제주방언연구회[1]를 결성하여 학술대회를 여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학술대회가 열릴 때면 취재를 위해 자주 드나들었다. 그런 일이 인연이 되어 선생을 가끔 뵐 수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살갑게 대해주시던 선생의 인자함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았다. 제주도방언에 관심이 있어서 구입한《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과 선물로 받은 논고편은 제주도방언을 공부하는 동안 나의 연구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또한 선생이 남긴 제주도방언 자료와 조사 지점은 내 연구의 밑거름[2]으로, 가끔은 선생께서 곁에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선생님의 학문 업적 가운데 '어휘 부문'의 발표를 맡게 된 것도 그런 인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선생님의 학문 세계는 제자인 강영봉 선생에 의하여 두 차례 정리되었다. 한 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관지《제주교육》130호의 특별기획 '근·현대 교육인 열전 34-현평효 선생'(2006)에서 〈연암 현평효 선생님의 삶과 학문〉이고, 다른 한 번은 한국방언학회의 학술지《방언학》(2019)에 쓴 〈연암의 삶과 학문〉이다. 이 두 편의 글과 연암 선생이 남긴 업적, 그리고 선생이 직접 써서 한라일보에 연재했던 '되돌아본 세월'[3] 등을 참고하여 이 글을 쓰려고 한다.

2. 제주도방언 연구의 배경

연암 현평효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수학할 때 핍박받는 가련한 동포들

1) 연암 선생은 1991년 2월 23일 창립 때부터1995년까지 회장을 맡았었다.

2)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는 연암이 남긴 자료집 등을 토대로, 조사 항목을 정하고, 연암이 조사지점에 도서지역을 더하여 조사한 후 언어지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선생님이 조사한 내용과 50년 이후의 조사 내용을 대비하여 실재시간에 따른 어휘 변화상을 살핀 바 있다.

3) '되돌아본 세월-제8회 연암 현평효'는 1993년 3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45회 동안(매주 수·토요일) 연재했던 회고록 성격의 기고다. 건강상의 개인 사정으로 연재를 중단하여 회고록이 완성되지 않았다.

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이를 위하여 관서대학 전문부 법률학과에 입학하여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뜻밖에 조선학도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어 강제로 일군에 끌려간 연암은 1945년 해방이 되자 11월 귀국하였다. 제주에 돌아오니 먼저 귀국한 학도병 동지들이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주제일중학교(오현중 전신)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연암도 이 일에 동참하여 1946년 4월에 개교한, 제주제일중 교원이 되어서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국어'를 자원하다시피 하여 맡았다. 수개월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던 연암은 2학기가 되자 고민이 깊었다. 어쩌면 이런 고민이 연암을 제주도방언 연구의 1세대의 길로 이끈 게 아닌가 한다. 〈되돌아본 세월〉 〈5〉[4]의 '국학에의 길(상)'에 그 때 고민이 잘 나타나 있다.

> 배운 바가 전혀 없는 과목을 그때그때 공부하며 가르친다는 것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에 만족하여 이대로 지낼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공부를 해서 새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날을 고민했다.
>
> 그러다가 친형님 현상흠(玄商欽)과 의논하고 해서 나는 그해 10월 보따리를 싸고 서울로 올라갔다. 국어국문학 분야를 전공해 국학도가 되어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
> 상경 후 나는 서울대 연대 고대 동국대 등을 돌아봤다. 그 즈음 미군정청은 국립종합대학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학생반대투쟁으로 서울에서는 강의가 안 되고 있었다. 반면에 동국대에서는 열정적으로 진지한 강의가 이뤄지고 있었고 문단의 거목들인 양주동(梁柱東) 김기림(金起林) 김진섭(金晉燮) 박종화(朴鍾和) 이하윤(異河潤) 씨 등이 문학부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다.
>
> 강의를 열성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나는 동국대 문학부를 선택했다. 동대 문학부

4) 이 글에서 인용한 〈한라일보〉 연재물 '되돌아본 세월'의 원고 중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자어, 이름이나 지명 등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바꿨다. 한자의 경우는 괄호 안에 넣었다.

는 그 당시부터 문학 활동이 무척 왕성한 편이었고, 현대문단에도 동대 출신들이 많이 진출했다.

(한라일보 〈되돌아본 세월〉 〈5〉 '국학에의 길 (상)' 중에서. 1993. 3. 20. 7면)

연암은 국학의 길로 가기 위하여 1946년 10월 상경하여 여러 대학을 돌아 다녔다. 동국대를 선택하게 된 것은 열정적으로 진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양주동 김기림 김진섭 박종화 이하윤 등의 문학의 거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암은 친하게 지냈던 함경도 출신 최학선(崔鶴璇)과 함께 허영호(許永鎬) 학장의《조선어기원론》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회계장부로 5권정도 되는 허 학장의 강의노트를 최학선과 둘이서 정리[5]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국어학에 큰 눈이 뜨인 게 아닌가 한다.

연암은 대학시절에 특히 고어학과 고전에 관심이 많았다. 격변하는 현대사의 한가운데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는 국학을 통해 국가·민족에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동국대 문학부에서의 생활은 무척 마음에 들었다. 특히 양주동(梁柱東) 교수의 강의는 인상적이었고, 더할 수 없는 열강이었다.

동국대학 국어국문학 연구의 초석이신 양주동 선생이 수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과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스승을 따를 만한 제자가 없다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 선생은 열 살 때부터 글을 가르칠 정도로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알려졌다. 1930년대에 일인 소창진평(小昌進平)의《향

5) 이런 사실은 2014년 허영호 지음, 김용환 엮음으로 나온《조선어기원론》(정우서적) '서언'에 "끝으로 원고 정리 정사(淨寫)에 동국대 학생 현평효(玄平孝), 최학선(崔鶴璇) 양군(兩君)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에 내 사의(謝意)를 표하며 기타에 노고를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11쪽)는 구절 속에서 확인된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84

가급이두의 연구(鄕歌及吏讀の硏究)》가 발표되자 선생은 민족적 의분심에서 향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42년《조선고가연구》를 출간해 내었다. 소창진평(小昌進平)과의 학적 논란과 응수에서 그를 극복시켜 그로 하여금 "조선에도 학문하는 학자가 나타났다."고 탄복하게 했던 것이다.

향가 등 고가요를 훈고 주석함에 있어서 그 해박한 지식과 혜지 그리고 정확·정밀한 학적 태도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 마지않게 한다.

(중략)

선생님의 학문의 한 부면도 이어받지 못하고 방언이나 수집하며 뒤적이고 있는 처지이지만 그래도 가끔 고어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지는 것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학문적 영향에서 그래지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라일보 〈되돌아본 세월〉〈6〉 '국학에의 길 (하)'중에서. 1993. 3. 24. 7면)

당시 동국대에서의 양주동의 위치는 대단하였다. 양주동의 열강은 동국대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학생까지도 찾아와 열정적인 강의를 들었다. 연암 역시 양주동의 강의에 심취해 늘 출석하였는데, 그 영향을 받아 특히 고어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졸업 후에 고향에 돌아온 연암은 1951년 11월 5일 개강한 학술강습소 형식의 '제주대학원' 설립과 1952년 도립초급대학 설립에도 참여하였다. 도립초급대학에서 연암은 국어학과 국문학 분야의 거의 모든 과

【7】 第1235號

되돌아본 歲月

〈第8話〉

延岩 玄平孝 (16)

濟州島方言硏究 ①

絶海孤島에는 古語 많이 보존되고

방언연구 國語史學에 매우 중요해

사진1 연암의 회고록 〈되돌아본 세월〉 중에서

목을 담당하였다. 도립초급대학이 1955년 4월 6일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연암은 사무에서 벗어나고, 전공 분야의 과목만 가르치게 되었다. 이로써 연암이 제주도방언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955년 4월 도립제주초급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 후부터 교수들이 사무를 보는 일은 없어졌다. 오로지 전공에 따라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년제 대학이 된 후에야 사무를 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문학·현대문학 등 과목은 다른 전임교수에게 맡기고, 국어학 분야의 과목만을 맡아서 강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이때에 와서야 전공 분야도 확정되었다.

내가 학부 재학시절에는 국어학 분야에서도 고어학에 관한 공부를 주로 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국어학도로서 이 지역의 학술 자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다. 학술 자원 중에서도 제주지역의 방언에 대해서 개척해 보자는 의욕을 자연 갖게 되었다. 지역방언, 즉 경상도방언 전라도방언 경기도방언 할 것 없이 각 지역의 방언은 어느 지역의 방언을 막론하고 모두 각각 국어의 일부분이 되고 동등하게 국어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그런데 방언 중에서도 제주지역의 방언은 여타 어느 지역의 방언보다도 국어학상 특이한 점이 많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중략)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에워싸여 있는 절해고도이다. 그리고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거리상으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개신파의 말이 좀처럼 여행하여 들어갈 수 없는 절해고도, 중앙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 이것이 제주도방언으로 하여금 특이한 존재가 되게 해온 것이다. 한국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를 가리켜 고어의 보고니 국어학의 개척지니 등등으로 일컬어져 온 것도 이런 지리적 조건과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데서였다.

사실 제주도에서는 한국 어느 도,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가장 희귀한 고대어의 형

태와 많은 고어 즉 15·16세기의 국어 어미형태, 16·17세기의 고어휘들이 노년층의 언어 표현에서 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일본인 소창진평(小倉進平)이 한국어 연구에 뜻을 두고서 1911년 내한하고서는 그 해부터 방언조사에 착수했다. 그 첫 번째의 조사 행각지가 다름 아닌 제주도였다. 하필이면 왜 제주도를 첫 번째의 조사 대상지로 잡았을까 의문이 간다. 언어지리학적 이론을 습득해 있었던 그로서는 중앙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절해고도인 제주도의 방언에야말로 희귀한 고대어의 형태와 많은 고어들이 보존되어 있으리라 믿고, 가장 중요한 방언으로 판단하고서 맨 먼저 조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그는 〈조선어의 역사적 연구상으로 본 제주도방언의 가치〉란 글에서 제주방언이 음운·어법·어휘 어느 분야에서 보나 한국어의 역사적 연구상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논했던 것이다.

이숭녕(李崇寧) 박사는 1951년 공무로 제주시에 들렀다가 몇 시간 동안 〈·〉음 어휘를 조사했다. 그 조사에서 국어음운사상의 중요한 현상들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 후 조사차 1955년 섣달 그믐날 밤 9시에 제주항 서부두에 도착했다. 곧바로 외도로 나가서 신정도 아랑곳없이 2, 3일 조사하다가 시내로 들어와 10여 일 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1957)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개별 방언에 대한 논고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제주방언의 조어법에서부터 명사·대명사·수사 및 격어미(조사)와 용언의 활용어미 특히 동사의 어미 등 광범위하게 논했다. 또 이숭녕 선생은 제주방언을 가지고서 향가를 고쳐 읽을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리고 제주도방언의 재인식을 제창했던 것이다.

언어지리학은 제주도와 같은 변방 도서지역에 고대의 언어 형태나 고어가 많이 보존되어 있을 것임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고어가 많이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주도방언에 대한 연구는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성을 지닌다고 이숭녕과 소창진평은 주장했다. 역사언어학, 전통언어학적 방법의 시대인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제주도방언 연구의 의의를 역사언어학적 측면에 두었던 것이다. 내가 조사하기 시작할 당시의 제주도방언 연구의 목적도 여기에 두었던 것이다.

(한라일보 〈되돌아본 세월〉 '제주도방언연구 ①' 중에서. 1993. 4. 28. 7면)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암이 제주도방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4월 이후의 일이다. 대학에서 고어학에 관심을 가져 공부하였지만, 제주 지역 대학에 몸 담는 국어학도로서 지역의 학술 자원인 제주 지역 방언을 개척해 보자는 의욕 아래 국어의 일부분인 방언을 국어학 연구 대상으로 삼아 방언 조사와 연구에 매진하게 한 것이다. 이런 자세로 연암의 본격적인 방언조사는 이듬해인 1956년 3월부터 이루어졌다. 그때 그의 나이 서른여섯이었다.

연암의 방언 연구는 앞서 제주도방언을 연구했던 이숭녕(李崇寧)과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과 마찬가지로 역사언어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3. 어휘 분야 연구 업적

연암이 남긴 업적 가운데 단연 최고는《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6]이다. 연암은 방언사전 성격의 이 자료집을 비롯하여 44편의 글을 남겼는데 이 가운데 어휘 분야 논문으로 〈제주도방언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어사에 대하여〉[7], 〈제주도방언 어사의 층위학적 고찰〉[8], 〈탐라 언어의 원류〉[9]를 꼽을 수 있다. 차례로 살펴보자.

6) 현평효,《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1962.

7) 현평효, 〈제주도방언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어사에 대하여〉,《국어국문학논문집》7 · 8집, 동국대학교, 1969.

8) 현평효, 〈제주도방언 어사의 층위학적 고찰〉,《장암지헌영선생화갑기념논총》, 1971.

9) 현평효, 〈탐라 언어의 원류〉,《제주대학논문집》3집, 1971.

3.1.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1962)는 제주도(濟州島)의 방언으로 지역별로 수집하여 전 후편으로 나눠 엮은 자료집이다. 서문(이숭녕), 자서(현평효), 범례, 전편, 후편, 조사지점도로 구성되었다. 방언사전 성격의 이 자료집은 연암의 제주도방언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연암의 방언 조사는 1955년 여름방학 때 시작되었다. 국문학과 재학생 2명을 대동하고 15일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10], 북제주군[11]의 한경면 각 마을과 구좌읍의 일부 마을을 돌면서 조사를 했다. 그때는 주로 지명에 관한 조사였다.

자서(自序)와 회고록 〈되돌아본 세월〉 〈17〉에서 밝혔듯이, 연암의 방언조사는[12] 1956년 3월 20일에 시작하여 1958년 12월 26일까지 2년 9개월여에 걸쳐 5차례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조사는 주로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 수업이 없는 날에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1956년 1월에는 현지인들의 자연스런 대화에서 방언 어휘를 수집해 보려고 1주일간 구좌읍·성산읍 방면으로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연스런 대화에서 어휘를 수집한다는 것은 무한정의 시간과 많은 경비를 소요하므로 지양[13]하고 계획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방언조사를 하였다.

---

10) 남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가도 되기 이전의 행정단위의 하나다. 지금의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서귀포시, 안덕면, 대정면 지역을 포함하는데, 지금은 서귀포시로 통합하였다.

11) 북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가도 되기 이전의 행정단위다. 조천읍, 구좌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을 포함하는데, 지금은 제주시로 통합되었다.

12) 방언 조사는 임지 조사, 통신 조사, 문헌 조사, 내성적 조사 등의 방법이 있다. 임지 조사는 조사자가 직접 조사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고, 문헌조사는 한 지역 방언으로만 기록된 문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말들을 비교하면서 수집하는 방식이고, 내성적 조사는 조사자가 자기의 모어 즉 고향 말에 대해서 조사자 스스로 내성하면서 기록하는 방법이다. 연암은 현장에 직접 가서 제보자들을 만나서 방언을 조사하고 채록했는데, 이 임지조사가 방언 조사의 가장 바람직한 조사 방법이다.

13)《한라일보》, 〈되돌아본 세월〉 〈17〉, '제주도방언 연구'(2) 중에서. 1993. 5. 1. 7면.

내가 현지조사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 바로 그 해부터였다. 1955년 여름방학 때 당시 국문학과 재학생 2명을 대동하고서 15일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한경면 각 마을, 한림읍과 구좌읍의 일부 마을을 돌면서 조사를 했다. 이때의 조사가 주로 지명에 관한 것이었지만 방언 조사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1956년 1월에는 현지인들의 자연스런 대화에서 방언 어휘를 수집해 보려고 1주일간 구좌읍·성산읍 방면으로 돌아다녔다. 이 자연스런 대화에서 어휘를 수집한다는 것은 무한정의 시간과 많은 경비를 소요하므로 지양했다. 그래서 제1차로 고어 요소가 많은 말, 'ᄋᆞ'音으로 발음되는 말 등 약 2천 어휘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그 어휘들을 조사 카드에 기입하고 천문·지리·방위·인윤·신체 등등 부문별로 철했다. 부문별로 철함은 전후 말이 연관이 있어서 질문하고 응답하기에 편하고 또 그와 관련된 어휘들을 더 수집해낼 수 있겠기 때문이었다. 이 1차 조사 항목 약 2천 어휘를 1956년 3월부터 7월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은 물론 강의 없는 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도내 12개 지점 즉 노형(老衡), 어도(於道), 조수(造水), 인성(仁城), 화순(和順), 하원(河源), 서홍(西烘), 태흥(泰興), 표선(表善), 수산(水山), 세화(細花), 조천(朝天)에서 60, 70세 노인들을 상대로 조사했다. 물론 어패, 어로에 관한 어휘는 각기 조사 지점의 부근 어촌을 찾아가 조사하곤 했다.

제2차에는 방언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말들 3천여 어휘를 선정했다. 이 3천이나 되는 어휘를 1956년 8월부터 57년 3월까지 도일원에 걸쳐 획정한 7개 지점에서 조사해내었다. 새로 획정된 7개 지점은 노형(老衡), 조수(造水), 인성(仁城), 서홍(西烘), 가시(加時), 수산(水山), 김녕(金寧)이었다. 이렇게 조사 지점을 2차 조사 이후에 줄인 것은 1차 조사한 어형들을 검토한 결과 특수한 물명 따위의 말을 제외하고는 별로 조사 지점 간의 언어 차이가 없어서였다. 제3차에는 2천 2백여 어휘를 1957년 3월부터 7월까지, 제4차에는 1천 4백여 어휘를 1957년 8월부터 9월까지 각각 조사해내었다. 그리고 제5차에는 1958년 12월에 일부 어휘에 대해 확인 조사를 했다.

(한라일보, 〈되돌아본 세월〉〈17〉, '제주도방언연구②' 중에서. 1993. 5. 1. 7면.)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90

1차에는 고어 요소가 많은 말을 대상으로 12개 지점에서 2,000여 어휘를 조사하였고, 2~4차는 7개 지점에서 방언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어휘 6,600여 어휘를 조사하였다. 2차 3,000여 어휘, 3차 2,200여 어휘, 4차 1,400여휘를 조사하였고, 5차는 확인을 위한 조사였다.

조사할 어휘는 유해류의 전통적 분류에 따는 천문·지리·방위·인윤·신체 등등의 주제로 나눠 조사 카드에 기입하고 부문별로 철했다. 부문별로 철한 것은 전후 말이 연관이 있어서 질문하고 응답하기에 편리하고, 그와 관련된 어휘들을 더 수집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지점은 1차 12개 지점, 2~5차 7개 지점 등 모두 14개 지점에서 중점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제주시 노형(老衡), 애월면 어도(於道)[14], 한림면 조수(造水), 대정읍 인성(仁城), 안덕면 화순(和順), 중문면 하원(河源), 서귀읍 서홍(西烘), 남원면 태흥(泰興), 표선면 표선(表善), 성산면 수산(水山), 구좌읍 세화(細花), 조천면 조천(朝天) 등 당시 행정 구역인 12개 읍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15] 한경면 조수를 '한림읍 조수'로 표기한 것은 연암이 방언조사를 시작할 당시인 1956년 3월에는 한경면이 한림면에서 분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한림면은 1958년 7월 8일 법률 제398호에 의거하여 '한림읍'과 '한경면'으로 분리되었다.[16]

2~5차 조사는 1차 조사 지점 가운데 제주시 노형(老衡), 한경면 조수(造水), 대정읍 인성(仁城), 서귀읍 서홍(西烘), 표선면 가시(加時), 성산면 수산(水山), 구좌면 김녕(金寧) 등 7개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표선면 가시와 구좌면 김녕은 2차 조사 때 새로 추가된 조사 지점이다. 따라서 연암은 1~5차에 걸쳐 모두 14개 지점에서 중

14) '어도'는 애월읍 봉성리를 말한다.

15) 조사 지점의 읍면 이름은 조사 당시 그대로를 따랐다. 지금은 '애월면'은 '애월읍', '한림면'은 '한림읍', '성산면'은 '성산읍', '남원면'은 '남원읍', '서귀읍'과 '중문면'은 하나로 통합되어 '서귀포시'가 되었다.

16) 그런데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1962)의 맨 뒤에 실린 조사지점도를 표시한 지도는 한경면과 한림읍이 분리되어 그려 있다.

점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행정 구역의 분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한림읍 지역은 조사 지점에서 빠졌다.

조사 차수별 조사 일정, 조사 지점,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1〉 조사 일정과 조사 지점·조사 내용

조사 차수	조사 일정	조사 지점	조사 내용
1차 조사	1956. 3. 30. ~1956. 7. 20.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12개 지점.	2000여 어휘 대상 –고어 요소가 많은 말, 'ᄋᆞ'音으로 발음되는 말 등.
2차 조사	1956. 8. ~1957. 3.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가시, 수산, 김녕. 도일원에 걸쳐 획정한 7개 지점[17]	3000여 어휘 대상–방언으로서의 특징 있는 말
3차 조사	1957. 3.~ 1957. 7.		2200여 어휘–방언으로서의 특징 있는 말
4차 조사	1957. 8.~ 1957. 9.		1400여 어휘–방언으로서의 특징 있는 말
5차 조사	1958. 12.		일부 어휘 확인 조사

그런데 수정판인《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1985)에 수록된 '피조사자 일람'을 보면 연암의 조사 지점은 위의 14개 지점을 포함하여 모두 33개 마을이고, 현지 조사를 벌인 날은 80일이다. 방언 조사를 위해서 만난 제보자는 163명이다. 조사 지역과 조사 일수, 제보자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지역은 15일 동안 5개 마을에서 18명의 제보자를 만났고, 애월 지역은 2일 동안 2개 마을에서 3명의 제보자를 조사하였다. 한경 지역은 3개 마을 11일 28명, 대정 지역 6개 마을 12일 17명, 안덕 지역 2개 마을 5일 11명, 중문 지역 2개 마을 3일 4명, 서귀 지역은 4개 마을 9일 16명, 남원 지역 1개 마을 2일 3명, 표선 2개 마을 8일 19명, 성산 지역 2개 마

17) 연암은 조사 지점을 2차 조사 이후에 12개 지점에서 7개 지점으로 줄인 것은 1차 조사한 어형들을 검토한 결과, 특수한 물명 따위의 말을 제외하고는 별로 조사 지점 간의 언어 차이가 없어서였다고 한다.

을 14일 24명, 구좌 지역 3개 마을 11일 19명, 조천 지역 1개 마을 2일 2명이다. 제보자 중 1명은 4차례 조사하였고, 1명은 3차례, 18명은 2차례 조사하였다. 이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마을별 조사 일수와 제보자 수

조사 지점	조사 마을	조사 일수	제보자 수	조사 지점	조사 마을	조사 일수	제보자 수
제주시	노형	9	6	안덕	덕수	2	4
	아라	2	6		화순	3	7
	연동	2	2	중문	중문	2	2
	용담	1	3		하원	1	2
	일도	1	1	서귀	서귀	2	4
애월	애월	1	2		서홍	5	6
	어도	1	1		신효	1	1
한경/한림	금등	1	1		토평	1	3
	조수	4	16	남원	태흥	2	3
	판포	6	11	표선	가시	5	14
대정	가파	2	3		표선	3	5
	보성	3	5	성산	고성	8	8
	상모	2	3		수산	6	16
	안성	2	3	구좌	김녕	8	15
	인성	2	2		세화	1	2
					평대	2	2
	하모	1	1	조천	조천	2	2
				12 지점	33개	94(80)[18]	163

이렇게 5차례 걸쳐 조사된 방언형은 13,905개다. 조사된 방언 자료에 대한 정리와 원고 작성은 1959년 봄에 시작하여 1960년 봄까지 1년 동안 이루어졌다. 13,905개의 방언 조사를 2년 9개월 만에 끝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1년여 만에

18) 전체 조사 일수는 80일이다. 14개 마을은 조사 일정이 중복되어 있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93

원고 정리를 끝냈다는 것은 더욱 경이롭다. 마흔이 안 된 나이의 연암이 당시 방언 수집과 정리에 얼마만큼의 정열을 쏟았는지 짐작케 한다. 연암은 특히 자료집의 어휘 정리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그 어려움은 다음의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방언 조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조사 항목의 선정을 비롯해서 조사 지점의 획정이나 현지에 가서 이상적인 제보자를 찾아 만나는 일, 그리고 조사 방법 혹은 질문 방식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런데 나의 조사 작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 수집해 놓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다. 원래 내가 조사 항목을 선정하여 내기는 직접적으로 음운상의 특징만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형태상의 특징만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어휘상의 특징만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제주방언 여러 분야의 어휘를 되도록 많이 조사해내는 한편 도내에서의 방언의 분화상, 분포상도 아울러 파악하자는 데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
> 그래서 도내를 12개 혹은 7개 지점에서 구획별 조사를 했고 또 많은 어휘를 조사 수집해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조사 수집되어 나온 전국의 방언 자료 중에서 수적으로는 가장 많은 어형인 13,905어나 되었다. 이 13,905어나 되는 방대한 양의 어형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 것인가도 큰 문제이거니와 이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또 하나의 일은 조사 수집한 13,905어에 각기 표준어를 대당시켜 놓는 일이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표준어사전이 갖추어 있어야만 할 일이었다. 때마침 한글학회의 《큰사전》 여섯 권이 모두 출간되어 나왔다. 이 큰사전이 1957년에 완간되어 나왔다는 것은 나의 작업을 위하여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전에 나온 문세영(文世榮)의 《조선어사전》(1938)이 있었지만 거기에 수록된 단어들은 표준어로 신빙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큰사전》은 1930년대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제정되고, 표준어가 사정된 후에 이들에 의거하여 어휘를 수집하고 뜻풀이를 한 것이므로 1950년대에 있어서의 서울 지역의 표준어로서는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었다. 《큰사전》 여

섯 권을 수 없이 뒤지며 방언 어형에 대당하는 표준어를 찾아내어 조사해 온 방언 조사 카드에 일일이 기입해 넣었다. 그리고 대당 표준어가 발견 안 되는 방언어형에는 각기 어의를 간단히 설명해 놓았다.

다음으로는 조사한 어형들의 순서를 잡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조사 수집해 온 부분별 순서 그대로 차례를 잡기로 했다. 그래서 '천문, 지리, 하해, 금석, 시분수, 방위, 신불의식인사행사유희의약, 인륜, 신체, 복식, 음식, 가옥, 기구, 선차구, 농경, 초목, 화과, 채소, 비금, 주수, 어패, 곤충파충, 잡사물,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접두접미사'의 순서에 따라 방언 어형들을 정리해 놓았다.

이와 같이 부문별에 따라 순서를 매기며 13,900여 방언어형을 수록해 놓았다. 일단 분류 수록은 했었지만 그 분류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이 방언 자료집을 이용하려고 할 때 어떤 방언어형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얼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또 표준어를 통해서 방언어형을 찾아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았다.

이래서 작성된 원고는 폐기하기로 했다. 새로이 방언자료집의 편찬을 전편과 후편으로 했다. 전편에서는 방언어형을 표제어로 내세워 거기에 대당되는 표준어를 기입해 주고 그 방언어형이 사용되는 지명을 표시해주었다. 후편에서는 표준어를 표제어로 내세워 그 밑에 각 방언어형을 수록해 넣으면 각 어형의 사용 지명을 표시해 주었다. 그리고 방언어형에 대당되는 표준어가 없을 경우에는 전·후편에 다 그 어형의 어의를 기입해 넣기로 했다.

그런데 전편에 표제어로 내세우는 방언어형은 전부 로마자화했다. 로마자화하는 뜻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 하자 함이었다. 배열 순서는 전편에서는 방언어형을 ABC순으로, 후편에서는 표준어를 ㄱㄴㄷ순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방언어형에 대해 영어로 번역을 했었다. 영역에는 고 강수언(康壽彦)·김필호(金弼昊) 교수 그리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김순택(金順澤) 교수가 수고를 해주었다. 안타깝게도 인쇄 과정에서 번역한 영어는 싣지를 못했다.

(한라일보, 〈되돌아본 세월〉×18〉, '제주도방언연구 ③' 중에서, 1993. 5. 8. 7면)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95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수집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가였다. 처음에는 유해류의 전통적 분류에 따라 수집한 어휘를 부분별로 13,905개 방언어형을 '천문, 지리, 하해, 금석, 시분수, 방위…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접두접미사' 순서로 정리하였다. 그러다 분류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많고, 자료집을 이용하려고 할 때 어떤 방언어형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또 표준어를 통해서 방언어형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작성된 원고를 폐기하고는 다시 방언 자료집 편찬을 위하여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 작성하였다.

자료집 배열은 '전편'은 방언형을 A B C순으로 배열하고 표제어를 로마자[19]로 표기한 후에 표준어를 한글로 표기하였고, '후편'은 표준어를 표제어로 내세운 후에 해당 방언형을 제시하여 ㄱ, ㄴ, ㄷ 순으로 한글로 표기하였다. 대응 표준어가 없는 방언은 ㄱ, ㄴ, ㄷ 순서에 따라 표준어 사이에 끼어 넣고 방언형 앞에 *를 붙여 구분하고, 그 의미를 기술해 놓았다.

배열은 전편은 방언, 품사명, 표준어 또는 방언에 대한 어의 설명, 지역명 순서로, 후편은 표준어 또는 방언, 품사명, 방언 또는 방언에 대한 어의 설명, 지역명 순서로 하였다.

발표 자료집 97쪽의 〈그림 2〉는 자료집의 '전편'의 기술 예이며, 〈그림 3〉은 후편의 예다. 자료집의 특징 중 하나는 삽도(揷圖)를 넣어 시각화한 것이다. 삽도는 '가죽감티, 곰박, 구덕, 남테, 낭갈레죽, 대바지, 덩드렁마께, 떼, 돌화로, 망시리, 메호미…' 등 모두 56개[20]가 실려 있다. 이들 삽도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기

19) 자료집의 전편을 로마자화한 것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 하려는 연암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각 방언어형에 대해서는 영어로 번역을 했었는데 인쇄 과정에서 번역한 영어를 싣지 못해 아쉬워했다.

20) 삽도를 그려 넣은 어휘 목록: 가오리연, 가죽감티, 곰박, 곰방메, 구덕, 국자, 남박세기, 남방에, 남테, 낫[鎌], 낭갈레죽, 다듬잇방망이, 대바지, 덩드렁마께, 떼[筏], 도리깨, 도시락, 돌화로, 망시리, 메호미, 멜망텡이, 멩두칼, 무지게, 물구덕, 빨랫방망이, 벤줄레, 산태, 살레, 삼태기, 쌍따비, 상돌, 소줏고리, 송동바구리, 시루, 식되, 아기구덕, 약도리, 어레미, 연자매, 왕방울, 쟁기, 쟁연, 정낭, 정당벌립, 주지, 지세화리, 채롱, 추니, 키[箕], 털벌립, 평상, 풀매, 함지박, 허벅, 호롱이, 호미.

물이거나, 형태가 다른 종류들을 시각화하여 제주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표 자료집 97쪽의 〈그림 1〉은 삽도의 예이다.

이 자료집의 또 다른 강점은 앞선 방언 자료집과 달리 조사 지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방언형에 따른 조사 지점을 밝혀 줌으로써 방언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 줌은 물론이고 연암이 방언조사의 목표인 "여러 분야의 어휘를 되도록 많이 조사해내는 한편 도내에서의 방언의 분화상, 분포상도 아울러 파악하는 데도 조사 지점 표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21]

연암 스스로도 '자서'에서 "1차에는 방언의 특질과 소구획을 정해 보기 위하여 음운상으로나 형태상으로 가장 방언적 특질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어휘 약 2천을 골라 12개 지점에서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암은 회고록 〈되돌아본 세월〉에서 자료집의 학문적 의미 세 가지를 꼽아 기술한 바 있는데, 첫째 사전식 방언자료집이면서 지역적 분포를 조사한 자료집에 큰 의의가 있고, 둘째 제주도방언에 보존되어 있는 고어와 희귀한 말들을 거의 남김없이 수집한 점, 셋째 제주방언 철자법을 확립한 점이 그것이다. 이 철자법은 오늘날 쓰고 있는 '제주방언 표기'의 기초가 되었다.

> 첫째로 사전식 방언자료집이면서 지역적 분포를 조사해낸 자료집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다. 석주명(石宙明) 씨의 《제주도방언집》에서의 7천여 어형, 박용후(朴用厚) 씨의 《제주방언연구》에서의 9천여 어휘, 어느 것이나 어느 한 지역에서의 수집에 그친 것이지 그들 어휘를 도내 지역별로 분포 상황을 조사해 본 자료집들이 아니었다. 이에 비하면 이 〈자료집〉은 어휘의 수집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휘의 지역별 분포 상황까지 조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각 어휘에 대해 표준어로 대역을 하던지, 아니면 사전식으로 그 어의를 설명해 놓았다는 것이 다른 방언집과 크

21) 실제로 성낙수는 연암의 조사 자료를 가지고 〈방언지도〉를 그려 제주도 방언 구획을 한 바 있다.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1992, 287~360쪽)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97

그림1 삽도의 예

A·D

ɒ:* 명 오: → o:
ɛa 명 아아
abaŋ(父) 명 아버지
aba-nim(父) 명 아버-님
abaži(父) 명 아버지 → abaŋ
abem(父) 명 아버-님 → aba-nim
ačhək(朝) 명 아침 → ažək
ačhim(朝) 명 아침 → ažək
ačhim-kɒsim[--kkɒ-] 명 아침-거리 → čoban-kɒ sɯm
ɒčhoŋ(兒塚) 명 아총
adɒl(子) 명 아들
adɒl-phɒlda 명 아들 장가 보내다.
adaŋ-hɒda 명 남의 비위에 맞추려고 알랑거리다.
adəl(子) 명 아들 → adɒl
agi-əpkè 명 업저지
agi-halmaŋ 명 삼신-할머니 → sam sɯŋ-halmaŋ
agi-ja 명 아기-야 아기를 귀엽게 부르는 말.
agi-kudək[--kku-] 명 대오리로 엮어 만든 아기를 눕혀 재우는 장방형(長方形)의 바구니. <P. 499 挿圖 參照>
agi-səlda 명 아이-서다
agit-paŋsək 명 태(胎) → the³
agit-pot 명 태(胎) → the³
agi-žida 명 아이-지다
agwižak-agwižak 명 아기작-아기작
agul-thɒk 명 → agwi-thɒk
agul-thək 명 → agwi-thɒk

그림2 전편 예

ᄀ·ᄁ

가:(邊) 명 ᄀᆞᆺ ᄀᆞ
가깝다(近) 형 가찹다 가참다
가격(價格) 명 까격 가격 재격
까끄라기 명 ᄀᆞ스락 ᄀᆞ시락
가나-오나 부 가나-오나
가닌(貧) 명 가난
가난-뱅이 명 가난-뱅이 가난-방이
가느스름-하다 형 ᄀᆞ느스룽-ᄒᆞ다
가는귀-먹다 동 ᄀᆞ는귀-막다
가는-체 명 ᄀᆞ는-체 구멍이 잔 가루를 쳐내거나 액체를 밭아내는 데 쓰는 기구.
가늘다(細) 형 ᄀᆞ늘다
가늠 명 가늠 가남
가닥-가닥 부 ᄀᆞ닥-ᄀᆞ닥 머리를 자주 앞뒤로 가볍게 흔드는 모양.
까딱-없:다 형 ᄁᆞ딱-없다* ᄁᆞ딱-웂다*
까닥-이다 동 ᄀᆞ닥-이다
•가달-머리 명 "가리"의 낮춤말.
•가달-춤 명 아이들이 방만스럽게 뛰놀며 장난하는 일. 잘레-숭
까닭 명 까닥 까닭
가댁-질 명 가닥-질 과닥-질 과닥
가동:-가동: 부 가동-가동 가동강-가동강
가두다 동 가두다 가도다 가치다
가드락-가드락 부 가드락-가드락

그림3 후전편 예

게 다른 점이었다.

둘째로는 제주도방언에 보존되어 있는 고어와 희귀한 말들을 거의 남김없이 수집해 내었다는 점이다. 나는 1962년에 이 'ᄋᆞ'음어를 집계하여 제주방언에서 'ᄋᆞ'음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본 일이 있었다. 집계 결과 'ᄋᆞ'음어 수는 2901어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제주방언에서의 'ᄋᆞ'음어는 이것으로 완전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고어들도 거의 수록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로 제주방언 철자법(맞춤법)을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방언을 한글 철자는 〈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에 의지하고서 발음대로 적되 방언 어법에 맞도록 했다. 방언의 현실 발음과 어법에 따라 체언 '밭[田], 낮[晝], 낯[顔], 볕[陽]'들은 각각 '밧, 낫, 놋, 벳'과 같이 철자했고, 용언 '깎다[削], 낮다[低], 짖다[吠]' 들은 '가끄다, ᄂᆞ잡다, 주끄다'와 같이 철자했다. 이렇게 방언 어법에 맞도록 철자법을 확립해 놓았다.

(한라일보, 〈되돌아본 세월〉, '제주도방언연구④' 중에서. 1993. 5. 12. 7면)

자료집 출간은 서울대 교수였던 이숭녕의 도움이 컸다. 이숭녕은 1956년 정초에 10여 일 간 제주시에서 방언의 형태 분야를 조사했고, 1957년과 1958년 여름방학에는 학술조사단을 이끌고 내도한 바 있다. 그때마다 이숭녕은 연암을 만나 연암의 조사를 독려하고 출판을 완료하면 출판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제로 연암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동양학 연구를 위한 한국에서의 학술원조 기관인 한국동아문화연구소에 추천하여 출판 보조를 받게 하였다. 이는 국어국문학 분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 인연으로 이숭녕은《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1962)의 '서문'을 헌사하여 자료집 발간을 축하하였다.

가끔 제주도에 들르면 현 교수는 꾸준히 제주도방언의 채집 정리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놀라 마지 않았었다. 도내의 해안선을 따라 또는 산간의 지점을 선정하여 정력적인 자료의 채집을 하여 거의 남김 없는 역저를 내게 된 것 학계의 성사가

아니고 무엇이랴. 한 섬을 이쯤 성실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학계 초유의 사실이며 금후도 드물 것이라고 하겠다. 나도 가끔 가서 보고 그 규모의 큼에 놀랐으며 하치않은 의견도 제시한 터이다.……그 뒤 씨의 집필의 경과를 듣고 때때로 연락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 간행이 되자 학계의 성사 이에 넘칠 것이 없을 지경이다. 씨의 다년의 노고를 위로하며 아울러 이 역저가 국어학에 크게 이바지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학계의 일원으로서 근래 일대수확이라고 찬양하는 바이다.

(이숭녕 '서문' 중에서)[22)]

연암 또한 이숭녕과의 인연, 책 출판이 되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등을 〈되돌아본 세월〉에 찬찬히 기술해 놓았다.

1962년 1월에 나의 《제주도방언연구 제1집 자료편》이 출판되어졌다. 그것은 서울대학교 교수 이숭녕 박사의 도움에 힘입어서였다.

이숭녕 선생은 1956년 정초 10여 일 간 제주시에서 이 방언의 형태 분야를 조사했었다. 이때 만나 뵙고는 나도 이 방언의 어휘를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후 57년 여름방학 때 학술조사단을 이끌고서 내도하셨는데, 이때는 내가 1, 2차 조사를 완료하고 3차 조사를 하는 중이었다. 이숭녕 선생은 집에 들르셔서 내가 조사해 놓은 카드의 방언 어형들을 뒤져보시다가 나무의 '남'과 조세를 의미하는 '나기세'란 어형들을 보시자 "참 희귀한 말들이 남아 있구나"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시고는 "조사를 완료하세요, 출판의 길은 내가 열도록 힘쓸 터이니까"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후 더욱 의욕을 갖고 3차, 4차 그야말로 정력적으로 조사를 해내어서 1957년 말까지 거의 조사를 완료했었다. 58년 여름방학 때에도 선생은 다시 학술조사단을 이끌고 내도하셨다. 이때 다시 집에 들르셔서 조사 카드를 보셨는데, 나

22) 현평효, 앞의 책, ⅰ~ⅱ, 1962.

는 일단은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조사 어형 수가 13,000여 어가 됨도 말씀드렸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동양학 연구를 위한 한국에서의 학술원조 기관인 한국동아문화연구소가 있었다. 여기의 이사진이 백낙준(白樂濬) 유진오(兪鎭午) 이병도(李丙燾) 양주동(梁柱東) 이숭녕(李崇寧) 김재원(金載元) 씨였는데 이숭녕 선생은 제1차로 나의 제주도방언조사연구를 추천했었다. 국어국문학 분야에서는 처음이고 해서 이사 전원이 찬동을 하여 출판 보조비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추천을 해주신 선생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 이사 제위께도 고마워해 마지 않았었다.

이숭녕 선생의 추천으로 출판 보조비가 나와서 1960년 6월부터 조판하기 시작하여 1962년 1월에 겨우 저서가 햇빛을 보게 되어졌지, 만약 그 보조비가 없었더라면 이런 까다로운 학술서적의 출간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한라일보, 〈되돌아본 세월〉×19〉, '제주도방언연구④' 중에서, 1993. 5. 12. 7면.)

출판 보조비가 나오자 자료집은 1960년 6월에 조판하여 1962년 1월에 햇빛을 보았다. 제주도방언 자료집 발간은 곧 제주지역에서 제1세 방언학자의 탄생을 의미하는 일이었고, 국어학계의 경사였다. 이로 인해 연암은 제1회 제주도문화상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교환교수로 선정되는 데도 자료집은 결정적인 역할[23]을 하였다.

1985년의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는 1962년의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의 초판의 수정판이다. 초판 간행 24년 만에 내놓은 수정판은 "초판에서 그 어휘

23) 연암은 〈되돌아본 세월〉 〈13〉 '4년제 대학이 되고서③'(1993. 4. 20. 7면)에서,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교수가 희망했다. 26명이 되었다고 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많은 분 중에서 나 혼자만 받기로 선정했다. 국어국문학과 교수들과 당시 문학부장이었던 전광훈(全光勳) 교수가 나를 1번 순위로 학장에게 추천했고, 또 고병익(高柄翊) 학장도 내가 1962년에 발간한 《제주도방언연구 자료편》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라 술회한 바 있다.

설명이 잘못된 데를 바로잡고, 뒤에 붙여 있는 정오표의 것들을 다 정정"해서 출판한 것이다. 수정판에는 초판에서 빼뜨렸던 "1956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7개 지점 내지 12개 지점에서 각각 임지조사의 질문에 친절하게 응답하여 주신 피조사자들에게 고마운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명단을 수록하여 사의를 표하려 한다고 적고 있다. 163명의 제보자는 성명, 연령, 성별, 직업, 조사지, 조사 연월일까지 기록해 표로 제시되어 있다.[24)]

24) 163명의 제보자를 연령대로 구분하면, 80대 3명, 70대 59명, 60대 63명, 50대 31명, 40대 5명, 30대 1명으로 74.8%는 60·70대다. 성별로는 남성 157명, 여성 6명이다. 남성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한다. 직업별로는 농업 142명(87.1%), 어업 20명(12.2%)이었다.

이 '자료편'은 연암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주요 업적 15편을 묶은《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와 짝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발간된 것이다.

이 자료집은 연암이 책임을 맡아 출간한 제주도의《제주어사전》, 2009년《개정증보 제주어사전》(책임 강영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사후에는 제자인 강영봉이 2005년 1월 23일 유족으로부터 건네받은 책과 유품[25] 가운데 방언 카드의 조사와 어미 부분과 직접 조사한 내용을 보태서《제주어 조사·어미 사전》(공저, 2011)를 엮었고,《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후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엮은《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공동, 2011)의 밑거름이 되었다.

3.2. 〈제주도방언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어사에 대하여〉

〈제주도방언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어사에 대하여〉는 연암이 1969년 동국대학교《국어국문학논문집》7·8집에 게재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연암은 '나무'(木)와 '나물'(菜) 어사에 대해서 그 실현되는 어형들을 문헌어 또는 여타 지역의 방언들과 대비하여 그 어형들의 국어학상 위치를 밝힌 다음에 각각에 대하여 어원적으로 구명하였다.

즉 연암은 해방 전에 조사 간행된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와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의 조사 자료[26], 조선시대의 문헌, 고려어를 수록해 놓은《계림유사》등을 토대로 제주도방언 '나무' 어사 '남', '낭', '나모', '나무' 네 어형과 '나물'의 어사 'ᄂᆞᄆᆞᆯ, ᄂᆞᄆᆞᆯ, 나물' 등 세 어형으로의 실현을 통하여 연원을 살폈다.

---

25) 유품은 도서 330여 권과 와이셔츠 상자에 담긴 방언 어휘 카드였다. 도서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연암문고'로 보관되어 있으며, 방언 카드는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에 오동나무 상자 3개에 보관되어 있다.

26) 소창진평,《조선어방언의 연구 상》, 333~334쪽, 1944. 하야육량,《조선방언학시고-'鍥'어고》, 111~113쪽, 1942.

‘나무’의 경우는, 해방 전에 조사된 다른 지역 방언과 대비했을 때 제주도방언은 ‘나무’형을 제외하고 ‘남’, ‘낭’, ‘나모’ 형은 다른 지역에서 확인이 안 되는 방언형이다. 문헌어와의 대비를 통해서 ‘나모’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18세기 문헌에 줄곧 나타나는 방언형으로, ‘나모’ 어형은 조선조 시대를 통하여 줄곧 사용되었던 어형으로 제주도 방언형에서 확인되고 있다.

‘남’은《계림유사》의 ‘松曰鮓子南’, ‘鮓子南(잣남)’의 ‘남’과 같은 어형으로 11세기 혹은 10세기 어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ᄀᆞᆫ, 남기’처럼 ‘-k-’음을 간직한 어형은 다른 지역의 방언형과 문헌어를 통해 확인하여 이 또한 15세기 이후 어형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우다. ‘낭기’, ‘넹기’는 ‘남기’의 변형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k-’음은 ‘나막신’의 ‘나막’ 구성 ‘nam’+‘-ak’의 ‘-ak’을 명사화 접미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연암은 ‘남기’의 ‘-k-’을 곡용 시에 그 어간과 격어미 사이에 삽입하는 요소로 보았다. 그 근거로 연암은《계림유사》의 ‘木曰南記’와 ‘松曰鮓子南’를 들었다. “‘鮓子南’의 ‘南’은 의의를 둘 여지없이 ‘nam’일 것이요, ‘南記’는 [namki]로 읽어 주격까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 [namki]형은 15세기 어의 형태 그대로인데, 이것을 주격어로 보아 [namk-]와 [-i]로 분석하고, 이 [namk-]을 ‘鮓子南’의 [nam]과 대비시킬 때, [namki]의 [-k]은 곡용 시에 삽입된 것이라는 것이다.

연암은 언어의 원시형태로서는 단음절 어형이 많으리라 추측하고, ‘nam’과 ‘naŋ’을 [na-]와 [-m], [na-]와 [-ŋ]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ㅁ]과 [-ㅇ]을 명사화 접미사로 분석하고, ‘나무’의 원시 형태를 [*나]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연암은 ‘나무’ 어사의 어형으로서 ‘*나’·‘남’·‘낭’·‘나모’·‘나무’ 다섯 어형을 추정하여 내었다.

‘나물’ 어사의 어형으로 ‘*ᄂᆞ’·‘ᄂᆞᄆᆞᆯ’·‘ᄂᆞᄆᆞᆯ’·‘나물’ 등 다섯 어형을 추정하고, ‘*ᄂᆞ’를 원시어형로 보고 있다. 연암은 그 근거를 제주도방언 ‘ᄂᆞᆷ삐’에서 찾고 있다. ‘ᄂᆞᆷ삐’의 ‘ᄂᆞᆷ’을 ‘ᄂᆞᄆᆞᆯ’의 원어형으로 본 것이다. 즉 15세기 전 혹은 10세기 경의 ‘나물’의 어형은 단음절 ‘ᄂᆞᆷ’이었다고 가정하여, 그 ‘ᄂᆞᆷ’ 어형이 ‘ᄂᆞᆷ삐’의 ‘ᄂᆞᆷ’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물’이란 어사는 ‘x〉 ᄂᆞᆷ〉ᄂᆞᄆᆞᆯ〉ᄂᆞᄆᆞᆯ〉나물’과 같이 변천과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104

정을 밟아 형성된 말이라는 것이다. '남'은 또 '나무'의 '남' 어형을 [na-]와 [-m]으로 분석한 것처럼 '남' 어형도 '*ᄂᆞ'[nɒ]와 '-ㅁ'[-m]으로 분석하였다. 즉 연암은 '나무'의 원시 어형 '*나'와 '나물'의 원시 어형 '*ᄂᆞ' 임을 나물의 일본어 [na](菜)에서 찾고 있다. 이 [na]가 국어의 원시어 '*ᄂᆞ'에서 분파되어 나간 어음(語音)으로 보고, '나물' 어사의 원시어형을 'ᄂᆞ'라고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연암은 '나무'와 '나물'은 동원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3.3. 〈제주도방언 어사의 층위학적 고찰〉

〈제주도방언 어사의 층위학적 고찰〉은 방언의 다양한 어형을 층위학적 고찰을 통하여 방언의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역사를 추론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논문으로 의의가 있다.

연암은 이 논문에서 역사적으로는 문헌상에서, 지리적으로는 분포상에서 살펴온 제주도방언 '남' '낭', '나모', '나무' 네 어형을 층위를 정하여 고찰하고 있다. 공시적으로 나타나는 이 어형의 층위는 '남'은《계림유사》의 '宋曰鮓子南'에서 확인되듯이 '남' 형은 방언 중에서 최고의 어형이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은 11세기 어형으로 현존하는 제주도 방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층위를 정할 때 제1기층이라고 보았다. 문헌어와 다른 지역의 방언의 '낭기' 등에서 보이듯 'ㅁ〉ㅇ' 변화 과정을 거친 '낭'어형은 '남'보다는 후대에 쓰였던 어형으로, 제2기층이고, '나모'는 11세기부터 16, 17세기에 이르면서 줄곧 사용해온 말로 방언기층은 제3기층을 이루고, '나무'은 개신파의 전파력을 타고 들어온 최신어로 제4기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하여 '나무'의 방언은 '남' 층위 위에 '낭' 층위가 쌓이고, '낭' 층위에 '나모' 층위가 쌓이고, '나모' 층위 위에 '나무' 층위가 쌓여 4개 층위를 이루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105

3.4. 〈탐라 언어의 원류〉

〈탐라 언어의 원류〉[27]는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탐라국명과 씨족명을 해독하고 그를 원용하여 그것을 고대 한어의 어느 지역의 부족명들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탐라언어의 원류가 어디인지를 구명한 논문이다.

연암은 이 논문에서 옛 문화나 향토 문화를 위해서는 지명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탐라'의 국명 '탐라(耽羅), 담나(儋羅), 탁라(毛羅), 탐모라(耽牟羅), 탐모라(聃牟羅), 탐부라(耽浮羅), 둔라(屯羅), 섭라(涉羅)' 등 8개 명칭과 부족 명칭 '양을나(良乙那), 고을라(高乙那), 부을라(夫乙那)'의 '那'를 통하여, 탐라의 언어는 원시 고구려계 언어에서 들어왔을 개연성을 밝히고 있다.

국명인 '탐라(耽羅), 담나(儋羅), 탁라(毛羅), 탐모라(耽牟羅), 탐모라(聃牟羅), 탐부라(耽浮羅), 둔라(屯羅), 섭라(涉羅)'는 '담나', '닥나', '둔나', '섭나' 네 개의 음으로 읽혔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여기에서 '담', '닥' '둔', '섭'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로, 고구려계 지명에서 '달', '담'이 '高' 또는 '山'의 뜻으로 뜻인 것을 감안한 추론이다. '羅'는 땅의 의미로 보았다.

부족 명칭인 '양을나(良乙那), 고을라(高乙那), 부을라(夫乙那)'의 '那' 자는 고구려, 신라의 인명에 드물게 나타나는데 '나'로 읽는다. 고구려 부족인 '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奴部'의 '奴'와 《삼국유사》 고구려본기의 '沸流那', '椽那', '澡那', '貫那', '桓那' 등 지명에 '那'가 나오는 걸로 봐서 탐라국의 부족 명칭인 '良乙那', '高乙那', '夫乙那'의 '那'도 고구려계의 언어에서 분기되어 들어온 말로 보았다. 따라서 연암은 탐라어의 원류는 원시 고구려계의 언어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밖에도 '제주도 방언 개관'[28]을 통하여 풍부하게 쓰이는 말로, '보리, 조, 가

27) 이 논문은 원래 진원일(秦元日), 양중해(梁中海)와 더불어 발표한 〈탐라의 학예·언어·종교의 연구〉 가운데 '언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다시 발표한 것이다.

28) 제주도, 〈제주도 방언 개관〉, 《제주도지(하)》, 1982.

축, 조수(潮水)' 관련 말들을 제시함으로써, 제주 방언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주도 방언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어휘를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그 항목만 제시해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 ●보리: 겉보리, 질우리, 살쳇보리, 술오리, 대오리, 감비역, 고고리, ᄀᆞ시락, 보리쏠, 겉보리쏠, 좁쏠, 보리체, 보릿졸레, 보릿낭, 보릿낭눌.
- ●조: 흐린조, 모힌조, 마가지, 가슬치기, 무기, 개발시리, 검은조, 맛시리, 꺽검은조, 강돌와리, 소용시리, 조코고리, 조촐레, 조칵메기, 조풍뎅이, 조체, 조찍, 조크르, 도난조.
- ●가축: 부시리, 부룽이, 쒜부사리, 셍부사리, 새송아지, 중성기, 황쉐, 노랑쉐, 어럭쉐, 노린어럭쉐, 검은쉐, 숙쉐, 식어럭쉐, 노린쉐, 신쉐, 총어럭쉐, 베어럭이, 지스렝이쉐(이상 소 명칭).

  웅매, ᄌᆞ매, 가레ᄆᆞᆯ, 먹가레ᄆᆞᆯ, 추가레ᄆᆞᆯ, 유매(메), ᄆᆞᆯ, 부윈유매, 검은유매, 청총이, 적대ᄆᆞᆯ, 초적대ᄆᆞᆯ, 고치적대ᄆᆞᆯ, 구렁ᄆᆞᆯ, 구렁적대ᄆᆞᆯ, ᄌᆞ류매(메), 부루ᄆᆞᆯ, 월레ᄆᆞᆯ, 노린월레ᄆᆞᆯ, 고레ᄆᆞᆯ, 벡매, 태성박이, 간저니, 골히눈이, 사퉁이, 곱소리, 활등이, 삼등이, 복쉬다리, 족바지, 족바리, 지스렝이ᄆᆞᆯ, 호달매.(이상 말 명칭)
- ●조수: 한쥐기, 쥐기, 아끈쥐기, 흔물, 두물, 서물, 늬물, 다숫물, ᄋᆞ숫물, 일곱물, ᄋᆞ돕물, 아홉물, 열물, 열흔물, 열두물, 막물.

4. 마무리

이상과 같이 연암은 어휘 분야에서《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이라는 대 업적과 3편의 논문을 남겼다. 이들 업적은 제주 출신 연구자로서 제주방언의 가치를 학계에 널리 알림은 물론 제주방언 어휘 연구의 중요성을 설파하여 후학들에게 방언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107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연암이 남긴 방언자료는 선생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에 이뤄놓은 작업들이다. 4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해 놓은 성과다. 따라서 대응 표준어와 뜻풀이, 어휘 등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도 보인다. 이 또한 후학들이 깁고 보태야 할 부분들이다. 어휘 분야 연구도 선배 연구자들이 선생이 닦아놓은 그 길을 이어 받아 한 켜 한 켜 연구 성과들을 쌓고 있는 것처럼 글쓴이도 분발하여 제주방언 연구의 성과물을 내놓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한다. 연암 선생의 방언 수집과 연구를 위해 애썼던 그 열정과 부지런함, 연구자로서의 진중한 자세를 좀 더 본 받아야겠다.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108

참고문헌

간행위원회(1980), 《연암현평효박사회갑기념논문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6), 〈'근·현대 제주교육인 열전 34' 현평효 선생〉, 《교육제주》(여름, 130), pp.62~80.
허영호 지음, 김용환 엮음(2014), 《조선어기원론》, 정우서적.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현평효(1987), 〈제주도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제4집, 제주도연구회, pp.3~10.
현평효(1993), 〈되돌아본 세월〉(《한라일보》 1993년 3월 6일~8월 14일).
현평효 등(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현평효 등(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현평효·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현평효·강영봉(2014),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 도서출판 각.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109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110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111

#01학술대회 내지190x260_레이아웃 1 20. 8. 1. 오전 9:47 페이지 112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 기념 전국학술회의

연암 현평효를 그리다

-그의 삶과 학문

발행일 2020년 8월 5일

발행처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63308 제주시 능산길 6-45(영평동)

전화 (064) 722-2203 전자우편 jejueo999@hanmail.net

누리집 http://www.jejueo999.kr

디자인·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

비매품